

기본연구과제 2002-0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송 두 범

발 간 사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부녀화와 청·장년층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휴경지 및 폐경지가 증가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은 사회·경제적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어 농가의 경쟁력 또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농림어촌지역은 우리 나라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이와 같은 농림어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시주민들과 교류하는 형태의 그린투어리즘 등 지속가능한 관광개념이 기존의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촌민박과 농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자원을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1994년부터 도입되었던 농촌·농업관광사업은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의 일부로서 1990년 농어촌휴양지 조성사업, 1991년의 농어촌민박사업 등과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어 왔다. 초기 농산물 직판농원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점차 농촌휴양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등 기능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그린투어리즘은 그 역사와 이론적인 연구가 일천할 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관련정책의 시범마을중 충청남도에 위치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린투어리즘의 문제점 및 현황, 향후 육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연구가 기본적인 개념설정이나, 사례 분석, 중앙정부차원의 육성방안 등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는 보다 현장가까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가경영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향후 우리 농촌이 가야할 길은 농촌성과 농촌인심을 토대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본 연구결과가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그린투어리즘 관련 연구에도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사례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에 최선을 다한 송두범 박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4절 용어정의	3
제5절 연구의 한계	4
제2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
1.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
2. 선행연구 종합	8
제2절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1.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11
2. 유사용어의 정의	13
3. 그린투어리즘의 대두배경	17
제3절 그린투어리즘 관련 정책 검토	19
1. 그린투어리즘 정책도입 배경	19
2. 그린투어리즘 정책현황	23
2.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문제점	51
제3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 분석	53

제1절 국내사례	53
1. 초록마을 : 강원도 용호리	53
2. 아리랜드 : 충남도 남전리	54
3. 환경농업마을 : 충남도 문당리	55
제2절 국외사례	57
1. 영국	57
2. 프랑스	59
3. 독일	60
4. 오스트리아	61
5. 미국	62
6. 대만	65
7. 일본	65
8. 국외사례의 시사점	74
 제4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75
제1절 충남의 그린투어리즘 현황	75
1.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현황	75
2.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80
제2절 그린투어리즘 사례조사	81
1. 조사개요	81
2. 조사결과	85
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문제점	95
 제5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98

제1절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기본전제	98
제2절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00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100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105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109
제3절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향후과제	114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114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116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11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19
제1절 요약	119
제2절 정책제언	128
 참 고 문 헌	 134
부 록	137

표 차 례

<표 2-3-1 > 중앙정부주도의 농촌관광 관련정책 주요사업	23
<표 2-3-2 >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25
<표 2-3-3 > 농촌전통테마마을 현황	27
<표 2-3-4 > 시범마을 유형	28
<표 2-3-5 > 2002년 아름마을가꾸기 대상마을 현황	29
<표 2-3-6 > 어촌체험관광마을별 체험프로그램	31
<표 2-3-7 > 마을별 기반시설 조성계획	32
<표 2-3-8 > 자연생태 및 복원우수마을 선정 현황	34
<표 2-3-9 > 자연생태 및 복원사례 우수마을	34
<표 2-3-10> 자연생태우수마을 : 보전우수마을우수마을	35
<표 2-3-11> 자연생태우수마을 : 조성 우수마을	37
<표 2-3-12>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	38
<표 2-3-13> 산촌유형	39
<표 2-3-14> 연도별 지원계획	40
<표 2-3-15> 주요사업별 세부내용	40
<표 2-3-16> 산촌유형별 개발모델 및 투자방향	41
<표 2-3-17>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45
<표 2-3-18> 금산군의 민박마을 현황	47
<표 2-3-19> 팜스테이마을 육성실적 및 계획	49
<표 2-3-20> 주요체험프로그램	50
<표 2-3-21> 지역별 특색프로그램 요약	50
<표 3-1-1 > 주요프로그램 내용	55
<표 3-2-1 > 유럽 및 태평양지역 국가의 그린투어리즘 현황	63
<표 3-2-2 > 일본 정부의 성청별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	69
<표 3-2-3> 일본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70

제 1 장 서 론

<표 4-1-1> 2000년 농어촌민박 현황	76
<표 4-1-2> 창업연도별 농어촌민박업체수	77
<표 4-1-3> 종사자수별 농어촌민박업체수	77
<표 4-1-4> 농어촌민박업체수의 변화추이	78
<표 4-1-5> 농어촌민박업 종사자 변화추이	78
<표 4-1-6> 농어촌민박업 매출액 변화추이	79
<표 4-1-7>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80
<표 5-2-1>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3~2005년)	101
<표 5-2-2>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5년 이후)	102
<표 5-2-3> 수통리의 환경 및 경관자원	107
<표 5-2-4> 독일의 민박경영 희망자를 위한 훈련과정(1992년)	113

그 립 차 례

[그림 3-2-1] 농림수산성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체계	68
[그림 4-2-1] 조사대상마을 위치도	81
[그림 5-1-1]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98
[그림 5-1-2] 그린투어리즘 추진방안	99
[그림 5-2-1]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 조직도	110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인구감소·고령화·부녀화로 공동화되고 활력을 상실한 우리 나라 농촌에게 던져진 핵심 화두는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전하며, 농촌주민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하고, 농촌다운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농촌-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농촌·농민이 안고 있는 입체적 어려움을 농촌 스스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통하여 인구과소로 피폐화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도시의 관광객을 농촌지역의 쾌적한 전원형 휴식공간에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관광농업정책이 198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관광농업정책은 농어촌발전특별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으로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휴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¹⁾

그러나 농업의 서비스적 기능을 강조한 관광농업은 다양한 관광농업의 전체상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농업의 서비스적 기능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특히, 이용자란 측면에만 지나치게 경도되어 관광과 레크레이션에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농업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란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²⁾

1)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2001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73.

2)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p.171.

이와 같이 관광농원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협애성과 편기성을 벗어나고, 국토와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은 낙후된 농업·농촌을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통문화와 복지향상',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유희농지활용'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도입 등으로 여가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희·위락 위주의 관광을 탈피하여 테마를 살리고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가생활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그린투어를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가민박 등 관광숙박업 실태 및 그린투어리즘 추진사례를 조사하여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을 탐색한다.
- 둘째, 그린투어리즘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 셋째, 충청남도 민박 등 관광숙박업 실태를 분석한다.
- 넷째, 그린투어리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실태를 분석한다.
- 다섯째, 충남지역의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 첫째,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관광으로서의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을 고찰한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둘째, 국내외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적용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우리 나라 농촌의 그린투어리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시범마을 중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및 농가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코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 및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4개 마을 대표자아 농가민박 운영자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한다. 국내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논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제4절 용어정의

1.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그린투어리즘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서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 등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하여 농촌의 생활·문화자원 등 구체적인 자원을 보존하는 농가민박이 핵심이 되는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정의한다.

2. 농어촌민박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농어촌민박은 농·산·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가정에서 숙식, 관광이나 쇼핑안내, 레크리에이션과 영접(pick-up), 통신 등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민박업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중 기타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민박을 농어촌정비법 제66조를 기초로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농촌의 기존 및 신규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농촌체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5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청남도 4개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반화하여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마을대표자 및 농가민박경영자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민박업자 및 이용객을 대표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지역민박업자와 이용객, 담당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과 참여연구를 통해 좀 더 심화될 수 있으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한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지닌다.

제2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³⁾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호철(2000)⁴⁾은 그린투어리즘이란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관광농원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초를 테마로 한 새로운 시민농원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도시 자연녹지를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우선 서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유형과 실태, 세계 그린투어리즘의 전망을 살펴보고,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한 현행 지역 그린투어리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로운 형태의 그린투어리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약초를 테마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개발방향으로 약초를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농원을 조성하여, 제3섹터방식의 추진기구를 결성한 다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를 계절별로 개최하며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환(2001)⁵⁾은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도입과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①지역주민의 참여와 소득증대 ②건강한 농식품 생산,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③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④도시와 농촌주민의 교류 ⑤녹색마을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 등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마을단위 접근,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주도,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신규투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3) 녹색관광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린투어리즘으로 사용한다.

4) 이호철, 앞의 논문.

5) 정기환, 앞의 논문.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한다. 그린투어리즘이 도입되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의 인프라 구축, 마을 및 지자체 단위의 인적자원 및 경영능력 개발로 도시와 농촌을 매개해 주는 매개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다섯 가지의 정책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즉, ①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②그린투어리즘 참여 주민, 지도자, 공무원에 대한 경영교육 및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제공 ③도·농교류사업 활성화 ④그린투어리즘 지원체제 구축 ⑤그린투어리즘 지원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우·최동주(2001)⁶⁾는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추진배경과 특징, 그린투어리즘 추진시책의 방향, 그린투어리즘 전개방향, 그린투어리즘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관광농업개발사업이 양적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농촌개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촌관광산업 개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신겸(2001)⁷⁾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이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농촌관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환경보전 차원에서 농촌관광을 육성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농촌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 문화자원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교류함으로써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관광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농특산물+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와 교류하는 농촌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미령(2001)⁸⁾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농촌마을의 관광개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농촌주민에 의한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교육하는 문제,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규제

6) 유승우·최동주,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200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7)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8)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하는 문제, 교류를 위해 주민과 소비자를 네트워킹 시켜주는 문제 등으로 요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각 주체들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안성(2001)⁹⁾은 농가민박,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 그린투어리즘의 주요유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무주·진안·장수지역의 그린투어리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광농가의 비즈니스 정신, 전국적인 관광조직, 매력있는 농장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린투어리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마케팅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상표개발과 시설등급제, 인증제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역설하고 있다.

김범수 외(2001)¹⁰⁾는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추진현황, 방문객의 인식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우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경영자, 일본의 경우 농산촌의 그린투어리즘 시설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개발주체, 조직체계, 프로그램, 추진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경영적 측면, 이용적 측면, 자연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유사점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산촌의 관광휴양시설간 네트워크 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반복이용자의 확보, 참여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의 조성·정비,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동기(2002)¹¹⁾는 농촌자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 역사, 생태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정책목표로 삼고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순창군을 사례로 그린투어리즘과 농촌자원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연구동향 검토와 함께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협력, 마케팅 전략,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 필요함을

9)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전북 무조, 진안,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pp.35~49.

10)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17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pp83~103.

11) 이동기,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강조하고 있다.

2. 선행연구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네 가지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 주민들의 상호 원활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를 둔다는 전제 하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출발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의 주민들과의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은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통해 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그린투어리즘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이다.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독일, 대구 등이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은 주로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의 집단이나 가족단위에서 보조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Oppermann(1996)은 관광은 농촌의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실제로 부수적인 경제수입만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Hjalager(1996)도 재정적인 이득은 농부나 정치가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설령 농촌관광을 통해 경제적인 수입을 확보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더욱 농촌이 지니고 있는 문화, 전통 등을 상품화와 결부시켜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옥표(1998)는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미령(2001)은 춘천시 근교에 위치한 집다리골의 경우 주민이 관리할 수 없는 규모의 정도를 벗어난 눈썰매장을 개장하였으나, 어설픈 도시홍내를 내다보니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나 원금상환이 곤란하고, 주민의 초기투자분이나 누적된 인건비 회수도 어려워 결국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린투어리즘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문옥표(2000)는 그린투어리즘이 환경친화적인 관광메시지를 지니고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자연의 보호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연을 관광상품화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오히려 자연파괴·환경파괴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대의 주장은 실제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다.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크게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¹²⁾ 즉,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농업·농촌의 다기능성 활용미흡, 자금부족, 전문화·특성화 미흡, 경영주의 경영능력 부족,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력부족 등을 들고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원사업의 형평성,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 선정기준의 불합리,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신겸(2001)¹³⁾은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체관광시장에

12) 이호철, 앞의 논문, pp.183~187.

13) 강신겸, 앞의 논문, p.11.

서 매력있는 틈새시장으로 농촌관광을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둘째, 개별사업자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농촌자원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지역(마을)전체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오히려 부채 증가와 경영부실을 초래하였다. 셋째, 사업주의 서비스마인드, 비즈니스 노하우 부족이다. 넷째, 시설중심의 하드웨어 확충에 치우쳐 체험프로그램,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다섯째, 전국적인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여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연구자들의 견해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관광농원, 민박마을, 주말농장 등 농촌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대개는 농촌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실패하고, 농촌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였으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나 농촌활성화라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¹⁴⁾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농촌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볼 때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을 담보하는 조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촌성(rurality)이다. 여기에는 자연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지리적 특성, 생활문화 등 농촌고유의 유·무형의 자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둘째, 농촌주민이다.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소규모 농촌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잠재자원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참여함으로서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농촌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농촌자원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닌 동일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농촌의 생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기반에 대한 이해와 도시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농업 및

14) 송미령, 도농교류의 주요논점과 정책과제 : 99농소정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여성농민연구, 한국여성농민연구소, 2000, p.28.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제2절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지역, 연구자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어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갖는 용어로 농촌관광(rural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인간적인 관광(huma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 다양하게 혼용하고 있다.¹⁵⁾

영국(1997)¹⁶⁾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綠)’이나 ‘자연(自然)’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의 존중, 자원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 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예를 들면, 농업이나 환경 등)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제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범수·이주희(1997)¹⁷⁾는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산어촌의 지역주민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관광/휴양활동이자 도시와 농산촌간 교류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15) 강신겸·김정연, 녹색관광, 1997, pp.27~28.

16) 강신겸·김정연, 위의 책, p.27.

17) 김범수·이주희,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1997, p.186.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山崎光博(1997)¹⁸⁾은 그린투어리즘은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 속에서의 투어리즘, 둘째,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 등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짐, 셋째, 농산촌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원, 생활, 문화적 자산 등을 도시민과 농촌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유지에 공헌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활용형태로서는 농가경영에 의한 民宿(泊), 레스토랑, 캠프장, 농산물판매장 등을 들고 있으며, 어느 것이나 요금이 싸고 신선하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광순(1998)¹⁹⁾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연(자연성과 고장의 생활문화)이야 말로 그린투어리즘의 무대요 자원(자산)이다. 둘째, 외부자본에 의한 대대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역민(혹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재생산 법칙을 해치지 않는(친환경적) 범위내의 소규모 개발이다. 셋째, 도시인과의 교류(방문자의 농림어업의 체험과 호스트와의 개인적인 교분-리피트-정주)가 핵심이다. 넷째, 단체로 몰려와서 보고 스쳐가는 주유형(周遊型)관광이 아니라 가족 혹은 소집단이 머물면서 체험하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다.

이호철(2001)²⁰⁾은 그린투어리즘이란 “우리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농업형태이다. 즉, 농업행위 그 자체를 상품화하여 하나의 장소에 고도로 집적한 형태로 농사체험과 농업환경까지도 스스로 상품으로 삼는 새로운 유형의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부(2001)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을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도시민은 여유 있는 휴식·휴양공간, 새로운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주민들은 농산물판매(1차 산업), 가공사업(2차 산업), 숙박·음식물서비스(3차 산업) 등 소득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¹⁾

18) 박광순,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九州北部地域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1호,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8, p.160에서 재인용,

19) 박광순, 위의 논문, p.168.

20) 이호철, 앞의 논문, p.17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관광과 농촌관광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생태관광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정의한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2. 유사용어의 정의

1)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은 대중관광(mass tourism)이 야기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각하고 이들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질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농장관광(farm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등이 대안관광의 일례이다.

다시 말해 대안관광은 지역의 자원과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소규모 관광시설과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리는 일찍이 1988년 WTO에 의해 정의되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문화적 순수성, 필수적인 생태과정, 생물다양성,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자원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이하여 환경을 파괴하거나 관광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의 하나이다.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생태관광이란 용어 그 자체는 관광 부문 내의 한 부분을 일컫는 반면, 지속가능성은 기존 및

21)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대안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관광 활동, 운영, 설립, 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생태관광(eco tourism)

생태관광이란 용어는 1983년 Ceballos-Lascurain이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을 연구하고 감탄하며 즐기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문화지역은 물론 비교적 교란 및 오염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거론하였다. 그의 주장이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으로 주목받은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그 후 생태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생태관광 또는 그와 유사한 관광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소개되어 ‘습지보전법’에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관광은 관광이 자연환경에 가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손상은 물론 자연지역의 가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발전하게 된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하나이다.

생태관광학회(The Ecotourism Society)는 생태관광을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환경의 문화적 자연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The Ecotourism Society, 1991a)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 많은 학자와 국제기구 혹은 국가들이 생태관광을 서로 다른 많은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 정의에는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 지역’, ‘환경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지역사회 고려’라는 세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1994; Gilbert, 1997).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Western, 1993; Dimanche and Smith, 1996). 개인의 여행동기를 충족시키면서도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하면서 여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자연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현상들과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관광의 주된 동기로 하는 모든 자연 기반의 관광 형태 ② 교육 및 해설적인 특성을 포함 ③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의 작은 특화된 기업체가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직. 다양한 규모의 외국 운전자들도 일반적으로 소집단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여행을 조직·운영·판매 ④자연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 지역의 보호를 지원 : 자연 지역을 보전 목적으로 관리하는 호스트 지역사회, 기관, 당국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 지역사회에 대안적인 고용과 수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자연 및 문화 자산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에서 발생하는 관광이 아닌 보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여러 유형의 환경 교육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자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부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²²⁾

4) 농촌관광(rural tourism)

농촌관광은 농장관광과 농업관광의 개념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서 농촌지역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관광을 총칭한다. 그러나 농촌개념규정의 어려움과 관광의 사회경제적 교류적 성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농촌관광의 정의는 아직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²³⁾

OECD(1994)에서는 농촌관광이 다른 유형의 관광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포인트로써 농촌다움과 지속성을 들고 있으며, Bramwell abd Lane(1994)는 농촌관광을 농장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 뿐 아니라 자연탐방, 생태관광, 생활문화관광

22) 강미희,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 척도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 30.

23) 홍성권·김성일,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Vol.30, No.1, 한국조경학회, 2002, p.19.

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5) 농업관광(Agriculture tourism)

농업관광은 농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민박제공, 농사 체험 등 농업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농장 또는 관광농원은 농업관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농가 단위가 작은 사회에서의 농업관광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체험민박과 음식 및 농산물 판매행위를 관광대상으로 한다면, 농가단위가 큰 유럽에서는 농장 안에서 일어나는 농업관련 생산 및 판매, 승마와 낚시, 워킹, 스포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관광대상으로 한다.²⁴⁾

6) 팜스테이(farm stay)

팜스테이란 도시민 등이 기존 민박농가에서 단순한 잠자리만 했던 것과 달리 농가에 머물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명소에서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여가형태로서 “농촌, 문화, 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형 농가민박 프로그램으로 종전의 ‘홈스테이(home stay)’를 명칭변경한 것이다. 체재와 영농체험을 강조함으로써 그린투어리즘에 한 걸음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영농체험은 적고 숙박제공(체재)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팜스테이도 개별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마을이나 지역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진흥전략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 본격적인 진입기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3. 그린투어리즘의 대두배경

1) 농업정책의 전환

24) 정기환, 앞의 논문, p.75.

25) 순창군,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1999, p.56.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농수산물부문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급속하게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의 역할이 전통적인 식량생산기지에서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도시집중dml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의 부양 등으로 사회적 기능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이 기존의 농업중심의 정책에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최근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업·농촌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왔지만 농가수는 감소하고, 혼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전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업취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업후계자부족, 영세한 경영규모, 중산간 지역사회의 유지 곤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다움을 감상하고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도시주민이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농촌간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껴 귀농하는 사람이 약간이지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유기농업을 포함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가꾸기가 전개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활동을 시작으로 여성의 지역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NGO의 활동도 엿보이며 아이들의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폐기물의 리사이클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순환시스템이나 자연에너지·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농촌의 다면적 기능²⁶⁾ 증대

원래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단순히 농림수산물을 생산·제공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전이나 국민생활의 유지·향상을 지속하는 중요한 기능을 다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1960대부터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후퇴해 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경부터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평가되하 시작하였으며 농업·농촌정비에서도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치 지워졌다. 즉 농업·농촌의 정비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중요성을 농촌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 및 국민전체가 이해하고 지지하여 지역에 필요한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4)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도시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도시생활환경의 불량으로 인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 자동차 및 산업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숙박 시설 등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박, 펜션, 팜스테이, 휴양림 등 그린투어리즘을

26) ① 농림수산물·에너지의 생산·공급(농림수산물·에너지) ② 생활·취업의 장 제공(주거공간·산업공간)③ 국토의 보전(토양침식방지·토사붕괴방지·홍수방지) ④ 수자원의 함양(保水·물저축·수량조절) ⑤ 자연환경의 보전(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완화, 대기정화, 수질정화) ⑥ 자연·문화자원의 제공 (자연환경·농산어촌문화자원·농촌경관·도시농촌교류)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대중화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5) 그린 라이프스타일 등장

지금까지의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도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푸른 자연과 인정이 남아있는 농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농산물 이용, 자연관찰과 체험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재충전, 아름다운 농촌경관에서의 휴식, 개성적인 지역문화와의 만남 등 도시-농촌의 교류를 통해 공생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인 그린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제3절 그린투어리즘 관련 정책 검토

1. 그린투어리즘 정책도입 배경

한국의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인들에게 도시적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환경·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그 대가로 농외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새로운 대안²⁷⁾이었으며, 이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⁸⁾

첫째,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1984년 이후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통하여 농어촌정비와 농업관광 및 농촌관광에 힘써왔다. 2000년까지 491개소의 관광농원과 266개의 민박마을을 조성하였고, 8개소의 농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였다. 2000년까지 관광농원개발사업에 1,231억원, 민박

27) 이호철, 앞의 논문, p.181.

28) 정기환, 앞의 논문, p.34.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마을조성에 252억원,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에 16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농원내방객은 주말이나 연휴 특히 하절기 및 휴가철에 집중되고 연중내방객 유치가 어려워 농원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기대했던 이익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농원이 1~2인 위주의 소수인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농장조성 및 입식의 부실, 농업부대시설의 활용도 저조,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에 과도한 투자, 운영자금의 부족, 먹거리 위주의 관광상품 개발, 경영마인드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²⁹⁾

따라서 당초의 취지와 달리 관광농원이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박마을의 경우에도 관광지를 방문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단순한 민박경영에 그쳐 농가에 체류하는 관광객이 향토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농특산물 구매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³⁰⁾

이와 같은 평가에 기초해 볼 때 기존의 관광농원 중심의 농촌관광정책으로는 WTO체제 이후 등장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감소문제와 지역사회의 활력상실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관광농원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관광농촌사업은 농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소득증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농림업과 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서 농림업과 농산촌 문화에 대한 체험·교류·여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관광농원만으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농촌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

29) 유승우 외,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정책연구보고 P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pp.39~61.

30) 정기환, 앞의논문, p.35.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현대 금융기관 등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연금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의한 노령층 관광객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2010에는 총국민관광객수가 606백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에서 60% 이상의 관광객이 농촌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 등 국민의 의식전환에 따라서 농업·농촌의 체험형 여가활동으로 정의되는 그린투어리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수준과 의식향상에 따라서 국민들은 건강, 환경, 생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정보사회의 특징인 개성과 다양성의 추구는 관광행태에서도 획일적인 대중적 관광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환경, 지역의 산업에 보다 큰 가치를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과 농업생산활동, 지역별로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건전한 생태환경 등은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농원만으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제까지의 관광농원이 농원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마을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문화, 농업인들의 생활문화 및 농림업 생산활동 등과 연결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림업·농산촌의 다면적 가치를 상품화하여 도·농교류를 통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생산성 높은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농가의 노동력 구조가 노령화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농촌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등 농업자원이 유향화되고 전통문화가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가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계속 진행될 경우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가 농촌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와 병행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지역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중심으로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농소정협력사업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하여 농림업과 농산촌의 생활체험에 의한 상호이해 증진과 농업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 정보교류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확대 등에 기여해 왔다.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숙박과 음식물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농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전통음식과 주류, 전통공예, 전통음악 등 농촌문화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할 수 있고 이들에게 일자리 등 소득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파괴,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식품의 오염 가능성 확대,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증대 등으로 깨끗한 환경과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는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농림업과 농산촌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농교류사업이 도시민의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농촌주민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농촌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때 농촌지역사회는 발전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여 도·농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농촌마을의 환경정비, 농촌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문화의 창달 등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2. 그린투어리즘 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 정책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990년대 중반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특히 농업소득의 증가가 주춤한 상황에서 비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아직까지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도 '95년 9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5%로 하락하였다.

이렇듯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취업이나 농업이외 사업을 통한 농외소득기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을 보아도 일본 87.0%(2000년), 대만 83.1%(1998년), 미국 88.6%(1997년), 프랑스 80.0%(1997년) 등 선진국과 주요경쟁국의 농외소득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 5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3-1> 중앙정부주도의 농촌관광 관련정책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특 징	사업비	비고
농 립 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2억 18개마을	공모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	1억 9개마을	공모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15~20억 9개마을	공모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생태우수마을 홍보	없음	공모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 마을	어업 및 일상생활체험 및 지역주 민과 교류	20억원 57개소	공모
산 립 청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을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특색 있는 개발	14억원 240개마을	지정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 등 전통적 의미의 농업정책 이외에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농촌관광 관련정책의 주요사업은 <표 2-3-1>

과 같다.

(1) 농림부

농림부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주말농장 등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370개소의 관광농원, 9개소의 휴양단지, 266개소의 민박마을 등이 지원된 상태이다.

1999년부터는 농소정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부터는 그린투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증대중장기추진계획』을 입안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중이다.

우선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전국 18개소에 36억원(국고 18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농촌체험활동(그린투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농촌체험활동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시범사업은 그린투어 활성화를 추진하는 자연마을에 대해 생활편익시설, 여가기반 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녹색체험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체험프로그램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험교류포털사이트 구축, 그린투어관련 자격제도 개발, 마을가꾸기 컨테스트 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은 농촌의 자연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유흥·위락위주의 관광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도 차원의 행정지원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기타 여가서비스 제공을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마을여건에 맞게 복합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함으로써 일반관광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표 2-3-2>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도 명	대 상 마 을	마을현황	마을사업	향후계획
계	18개 마을			
경 기	여주군 금사면 상호리	55가구, 127명, 유기농 야채	체험, 민박	토속풍의 시설설치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59가구, 169명, 각종과일	축제, 민박	꽃동산조성, 전원 일기촬영지의 자원화
강 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마을	82가구, 398명, 무농약 오리농산물	축제, 체험, 민박	직러래, 도시민 고향만들기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오항1리	28가구, 54명, 친환경농법	체험, 민박	체험농장, 캠핑장
충 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용바위골	87가구, 191명, 각종과일	체험, 민박, 직거래장터	환경개선사업
	보은군 회북면 쌍암3리, 고석리 부락	91가구, 213명, 각종과일	체험, 민박	숙박시설 개선
충 남	서산시 해미면 오하리	80가구, 195명, 곡물류와채소	체험, 민박	별마을 추진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119가구, 332명, 각종채소	체험, 민박	축제개발, 공간조성
전 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안심마을	89가구, 350명, 각종나물	체험, 민박	방문자센터구축, 프로그램개발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	23가구, 61명, 친환경농산물	체험, 민박	농사체험확대
전 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영보부락	80가구, 184명, 각종채소	체험, 민박	관광코스개발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가정부락	26가구, 55명, 각종과일	체험, 민박	체제형프로그램 개발, 마을정비
경 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중기부락	52가구, 127명, 각종채소	체험, 민박	관광코스, 체험, 축제개발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교촌부락	65가구, 173명, 각종곡물	체험, 민박	연계관광코스개발
경 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	47가구, 123명, 산나물	체험, 민박	체험, 기반조성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미천부락	50가구, 160명, 산나물	체험, 민박	프로그램개발
제 주	서귀포시 예래동	1,232가구, 3,785명, 각종해산물	체험, 민박	복원사업, 마을 정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103가구, 262명, 가축사육	체험, 민박	마을정비, 체험 공간조성

자료 : 농림부, 보도자료, 2002.5.12를 재정리.

그러나 농림부의 농촌관광자원 개발은 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대개는 농촌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실패하고, 농촌주민의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였으며,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

득 증대나 농촌활성화라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³¹⁾

(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확충 및 농촌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에 의거 “전통테마마을”을 신규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의 조성 목적은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있다.³²⁾

전통테마마을의 시책 및 추진방향은 마을단위 고유한 농촌전통테마를 발굴·보존하여 교육 및 체험시설 설치, 계절별·기간별·인원별 다양한 농촌전통문화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농촌다움과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을 고유의 환경 조성, 마을주민의 경영관리능력, 서비스, 마을안내능력 배양교육 실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농촌주민의 사업역량 배양,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여성 일감맞기, 향토음식 맥 잇기, 농촌노인 생활시범마을 등 기존의 농촌생활개선사업과 연계추진, 종합적인 문화 및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등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며, 지역의 전통문화 여건이나 요구에 맞추어 지원시설을 적용한다.

<표 2-3-3> 농촌전통테마마을 현황

31) 송미령, 앞의 논문, p.30.

32) 농림부, 2002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2, p.562.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구분	마 을	주요테마	체 험 프 로 그 램
경기	이천시 대월면 1리	자채방아	방아박물관 견학, 방아체험, 전통놀이(장치기, 그네타기, 널뛰기 등), 향토문화유산 답사(자전거 하이킹), 짚공예 (짚신 등 소품만들기, 짚신신고 산책로 거닐기),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 구워먹기, 농산물 장터, 모내기, 파종체험, 봄나물캐기, 원두막, 과수원 체험, 미꾸라지잡기, 논 생태학습, 햅쌀 수확체험, 자채농요 체험, 대동놀이, 농사준비, 도자기 체험, 버섯재배농가, 축산농가 견학
강원	양양군 현북면 전 2리	탁장사 놀이	산나물·두릅 채취, 나무수액 채취, 자연생태체험, 민물고기 잡기 및 천렵, 감자, 옥수수 구어 먹기, 자연생태체험, 송이 채취, 밤·고구마 구어 먹기, 자연생태체험, 눈썰매 타기, 양미리 구어 먹기, 자연생태체험, 탁장사 놀이, 떡 만들기, 메밀국수, 두부 만들기, 기름 짜기, 농사체험(감자, 벼, 옥수수, 고추, 감, 밤 등)
충북	진천군 진천읍 리	생거진천 화랑촌	장 담그기, 산나물채취, 호두 따기, 농사체험 (모심기, 배추 뽑기 등), 농사체험(고추 따기, 옥수수 따기 등), 연곡계곡 물놀이, 봉숭아물들이기, 김장하기, 눈썰매 타기, 빙어낚시체험, 화랑체험, 전통문화체험(숯공예, 도자기, 짚공예) 먹거리체험(손두부, 도토리묵), 문화유적탐방 등
충남	홍성군 구항면 리	시향에 취한 거북이	명당기체험, 시조체험, 거북이체험, 전통생활문화체험, 대나무낚시, 봄나물 채취, 화전놀이, 밤줍기, 농사체험, 생태체험(금, 계곡 생태관찰), 소나무숲 삼림욕, 눈썰매타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전통음식체험, 한라무, 아침산책길 오르기, 7바위 전설찾기
전북	완주군 경천면 구천 리 구재	에코티어 링	에코티어링, 곤충 표본장 견학, 곤충해설, 야생화 감상, 나무곤충·황토코트 만들기, 자전거 하이킹, 농사체험, 디지털 사진, 꽃감 깎기, 대추수확
전남	광양시 옥룡면 주산 리	도선국사 체험	야생녹차체험, 산나물 따기, 고로쇠된장 만들기, 매실·자두 따기, 자두씨앗 소품 만들기, 황토길 걷기, 밤 줍기, 감 따기, 차명석 만들기, 시루받침 만들기, 숲길 산책, 산사체험(종건 주지스님과의 만남), 화로에 밤 구워먹기, 아궁이 불때기, 손두부 만들기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 1리	역사문화 탐방, 예 절교실, 영농체험	농사 체험(나물 채취, 농산물 수확, 탈곡 등), 마을산책(새벽산책, 들녘감상, 낙엽 밟기 등), 전통 헬쓰(제기차기, 널뛰기, 장작패기 등), 알거리체험(회재할배 배우기, 천자문, 효심·예절교실)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다랭이논	몽돌바닷가 산책, 다랭이 샷샷배미, 시골학교 운동회, 미륵불 일출, 다랭이 만들기, 다랭이 새참, 농사체험(봄나물 뜯기, 마늘종뽑기, 마늘수확), 도롱이와 다랭이, 풍물배우기, 짚공예(도롱이, 김발, 짚신 등), 보릿대 치자염색, 솔뚜껑 빈대떡 몽돌바닷가 산책, 몽돌해변 해수욕, 손가락 그물로 물고기 잡기, 솔뚜껑 빈대떡, 농사체험(콩도리깨질, 벼수확, 마늘파종, 시금치 파종), 쥐불놀이, 또아리 만들기. 다랭이 연 만들기, 다랭이 연 날리기, 농사체험(동초, 시금치, 쑥, 냉이 수확)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제주사람 들의 생활문화	향토음식 만들기 및 먹기(오메기술, 흑돼지 바베큐, 빙떡, 생선물회, 생선회, 꿩엿, 감귤잼), 생활문화 체험(전통초가집 생활, 낚시, 바닷잡이, 연자방아 켜기, 천연염색(감귤, 감물염색 등), 아침에 고기잡이 배 마중 가기, 제주말로 전설듣기, 오름오르기), 농사체험 풀 따기(11월 ~ 이듬해 1월), 스포츠 및 레저활동, 축구, 족구, 레크레이션등(자채프로그램 운영가능)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3) 행정자치부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리투어리즘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은 개발잠재력이 높고 고유전통이 살아 있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잘 보전된 자연환경·고유전통 등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테마마을로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민박마을 조성, 특산품 개발, 직판로 개설 등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원을 발굴하고 도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종래의 하향식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환경개선과 소득원을 창출하는 상향식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특성이 살아있는 테마농촌마을 육성을 통해 푸른환경과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 공간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농촌형”, “생태녹색관광형”, “21세기선도형” 등 3개 유형별로 도별 1개 마을, 총 9개 마을을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3-4> 시범마을 유형

구 분	내 용
전통농촌형	농촌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도시민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공간마련과 전통농촌사회에 대한 청소년 학습장으로 활용
생태녹색관광형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특화된 테마별 체험관광을 즐길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농외소득 창출
21세기 선도형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복지시설을 완비하고 정보화 기반구축을 통해 생산·유통체계를 선진화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도시근로자 평균수준 이상으로 향상

<표 2-3-5> 2002년 아름마을가꾸기 대상마을 현황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시도	마을	일반현황	주요 테마	개발방향	주요사업내용
부산	기장 임랑	· 201가구, 569명 · 기장미역 · 다시마와 함께 바다와 해수욕 장 등 천혜의 관광자 원을 가진 마을	파란 마을	· 임랑해수욕장 휴 양기반시설 완비 · 미역, 다시마 채 취 현장체험, 특 산물직거래장터 및 판매장 개척	· 휴양기반시설, 정보화 기반시설, 특산물생산, 홍보지원 및 현장체험 사업, 해양씨름대회 등 각종 이벤트 · 25개사업, 1,301백만원
인천	강화 장화	· 50가구, 252명 · 쾌적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일몰경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마을	낙조 마을	· 갯벌 · 낙조 등 천혜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 생태 · 녹색관광마 음으로 개발	· 휴양편의시설, 현장학 습 및 생태환경 복원,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 26개사업, 3,000백만원
광주	북구 금곡	· 85가구, 271명 · 무등산 주변의 역 사 · 문화를 느낄수 있는 대도시 인근 농 촌마을	무등산 마 음	· 무등산을 이용한 사계절 테마여행 프로그램 및 체험 농장 운영	· 정보화기반 및 전자상 거래망 구축, 생활기반 시설, 전래문화 체험시 설 등 · 25개사업, 1,200백만원
울산	북구 금촌	· 63가구, 213명 · 동해의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이 있 는 어촌마을	레저 마을	· 산악마라톤, 맨 발등산로, 야외 결혼식장 등 도시 민들의 레저 · 이 벤트행사 유치	· 마라톤코스 및 체육시 설개발 · 설치, 생활기반 시설, 주말농장, 야외결 혼식장 등 · 18개사업, 2,222백만원
경기	용인 학일	· 58가구, 159명	약초 관광 마을	· 약초재배단지 및 황도한방원 운영 · 영화촬영지, 전통 가옥을 이용한 역 사관, 전통장담그 기, 어린이 농사 체험 프로그램운 영 등 관광상품 개발	· 한방원신축, 생활기반 시설정비, 농산물생산단 지조성, 관광상품 · 전통 문화체험 · 농촌체험 프 로그램 운영 등 · 22개사업, 1,855백만원
강원	삼척 고무 릉	· 43가구, 122명 · 삼척시 역사기행코스 인 환선굴 지역에 해당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 는 환선굴연계 관광 중심마을	굴피 마을	· 강원도 산골 전 통가옥(굴피) 및 디딜방앗간 복원, 눈썰매장 · 자연관 찰원 등 조성	· 전통가옥 및 재래식 방앗간조성, 생활기반시 설, 다목적운동장 · 야영 장 등 · 13개사업, 1,786백만원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시도	마을	일반현황	주요 테마	개발방향	주요사업내용
충북	제천 참나무골	· 36가구, 141명 · 충주호주변의 청풍문 화단지와 약초시장 등 한방휴양지로서의 기반을 갖춘 마을	참 숫 마 을	· 전통숫가마, 농 기구제작소 복원 및 참숫가마 체험 등 건강체험시설 조성	· 탐방편의시설, 숫가마 체험장 및 농기구제작 소건립, 마을캐릭터개 발, 임도개설 등 · 13개사업, 2,340백만원
충남	금산 수통	· 62가구, 163명 · 마을주변 금강과 양 각산이 있어 조망이 양호하고 젊은층이 많아 마을개발에 의 욕이 높은 마을	인 삼 마 을	· 인삼재배, 약초캐 기, 인삼음식 등 인삼건강체험시설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태·자연학습장, 주 말농장, 생태하천공원 조성, 방갈로, 찜질방, 등산로, 삼림욕장 등 조성 · 16개사업 2,032백만원
전북	무주 신대	· 45가구, 111명 · 덕유산국립공원 적상 산 중턱마을로서 단 풍 및 설경이 아름다 운 마을	산 머 루 마 을	· 산머루재배단지 및 와인공장·전 시판매장 조성, 계절별축제 등 산 머루와인 테마빌 리지 조성	· 탐방 및 생활편의시설, 산머루재배단지, 습 지·저류지설치 등 · 14개사업, 6,315백만원
전남	해남 연동	· 67가구, 134명 · 비자나무숲과 녹차 밭, 윤선도고택 등 농촌의 아담한 정취 를 느낄 수 있는 마 을	윤 선 도 마 을	· 윤선도고택 등 전 통가옥복원, 서당 건립으로 한문교 육 및 전통시조체 험장으로 조성	· 전통마을길 정비, 녹우 당 등 전통가옥복원, 서당건립·비자나무숲 · 녹차밭정비 · 4개사업, 1,150백만원
경북	영천 정각	· 58가구, 140명 · 보현산천문대입구에 위치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이 풍부 한 마을	천 문 대 마 을	· 천문대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연계 한 관광상품개 발 · 별축제, 행글라 이더축제 등	· 별축제, 행글라이더축 제, 생태공원, 숲속교실 운영 등 관광자원개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 16개사업 2,468백만원
경남	하동 사기	· 32가구, 106명 · 일본국보 정호다완의 전래지로 추정되는 우리 전통 막사밭의 본고장인 전통도예촌	도 예 촌 마 을	· 막사밭과 녹차의 유기적조화 및 체 험관광으로 연계 개발	· 도자기체험장, 도예전 시관, 녹차밭, 방갈로조 성, 도요유적지복원,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 18개사업, 3,060백만원
제주	북제 주 다리 마을	· 107세대, 257명 · 산굼부리를 비롯하여 광활한 초지에 은백 색의 억새꽃과 한가 로이 풀을 뜯는 우마 들을 볼 수 있는 목 가적인 마을	전 통 식 품 마 을	· 빙떡·메주 등 전 통식품계승 체험 및 자역·문화탐 방 등의 관광체험 상품 개발	· 생활 및 탐방편의시설 확충, 전통식품만들기 체험장, 주말농장조성, 다목적운동장 등 · 19개사업, 2,330백만원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4)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의 개념은 해안지역과 섬지역 어촌에서 체재하며 어촌과 해변 그리고 바다에서 어촌생활 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곳이다. 즉, 자연경관 감상과 어민들의 어업과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건강」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다.

<표 2-3-6> 어촌체험관광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구 분	체험테마	생활체험	어업체험	생태체험	레크레이션	건강육성	문화체험
제주도 고산마을	트롤링 체험	어촌민박, 향토요리, 한 치·오징어 말리기	트롤링, 야간배 낚시, 갯바위 낚시	차귀도 탐방, 무인도야영	스킨 스쿠버, 하이킹, 해수욕	검은 모래찜질, 지압거리	어촌생활 문화, 분재 예술원, 선사유적
충남도 송석마을	양식장 체험	어촌민박, 향토요리, 자하젓 담그기	가무락· 바지락·맛 등 양식업, 건각망	갯벌 탐 사, 조 수 변 화 관찰, 자생 식물·철새 관찰	갯벌 축구· 족구·비치 발리볼	모래찜질, 해수욕, 갯벌놀이	한산 모시축제, 한산모시관
경기도 선감마을	갯벌체험	어촌민박, 바지락 젓갈, 대부도 포도가꾸기	양식어업, 바지락·맛·굴, 맨손어업, 건각망	갯벌 생 태 탐사, 해양 생물관찰	배낚시, 갯바위낚시	갯벌 축구· 족구·비치 발리볼, 산책	해양 탐구관, 풍어제, 당산제
강원도 장호마을	정치망 어업체험	어촌민박, 식혜·젓갈 담그기, 오징어 말리기, 수산물위판	정치망· 유자망조업, 야간오징어 잡이. 미역채취, 가리비양식, 방게잡이	내수면 어종생태 견학, 수산동식물 및 야생화 관찰	낚시, 스킨 스쿠버, 무인도	모래찜질, 해수욕, 산책	어촌생활 문화,당 성황당, 남근공원, 공민왕릉
경북도 대진마을	스킨 스쿠버	어촌민박, 과메기 만들기, 수산물위판 (영덕대게)	정치망 조업, 양식어업, 가리비·미역, 채첩·조개 줍기	수산자원 개발연구소 (어종의 성 장관찰 및 영산관람)	낚시, 스킨 스쿠버, 수상스키, 윈드서핑, 제트스키	상대산 산책, 해수욕, 비치발리볼	신돌석장군 생가, 대게 ·복사꽃 축제, 고시리 전통마을

자료: 김재민, “어촌·어항의 관광상품화 방안”, 어촌·어항관광활성화를 위한 포럼, 해양수산부, 2000, p.44.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어촌체험관광은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의 체험, 다양하고 흥미로운 여가활동, 몸과 마음의 릴렉스와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어촌체험관광의 요소는 어촌견학 및 생활체험, 어업체험, 생태관광, 스포츠 레크레이션, 문화관광, 건강육성 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³³⁾

해양수산부에서는 1999년 7월 어촌지역 5개 마을을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발표하였다. 선정마을별 체험프로그램과 어촌체험관광마을별 기반시설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향후 2009년까지 전국 57개소를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하여 마을당 20억원(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표 2-3-7> 마을별 기반시설 조성계획

구 분	기반시설	수익시설
제주도 고산마을	안내소, 공중화장실, 차귀도 선착장, 건강지압거리, 간이해수욕장, 수월봉 진입도로	민박시설 2동(15실) 스쿠버다이빙용 어선1척 어촌종합센터(휴게소, 상가) 특산물 직판장
충남도 송석마을	안내소, 공중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식수시설, 음수대, 가로등 등	민박시설 5동*30실) 특산물 직판장
경기도 선감마을	안내소, 공중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상수도, 가로등, 체험어장 진입로 등	만박시설 확충 안전놀이시설
강원도 장호마을	안내소, 공중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상수도, 가로등 등	민박시설 4동(25실) 통산품 판매장 1동
경북도 대진마을	안내소, 공중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가로등 등	민박시설 33동(20실) 스킨스쿠버 교육장

자료: 김재민, 앞의 논문, p.47.

33) 김재민, 앞의 논문, p.44.

(5) 환경부

환경부는 생태계와 경관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원래모습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과, 신규로 조성된 마을이라 할지라도 자원순환형 생활양식과 생태복원 공법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나누어 10개 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이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지역주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거나 주민의 노력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이루어가고 있는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대체로 20~50호 정도의 전형적인 농촌 또는 산촌마을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마을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많은 종류의 야생동·식물이 더불어 서식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은 유기농법실시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연보전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을 가꾸며,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마을이다

자연생태복원우수사례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관심부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한 결과, 원래의 자연적인 모습이 되살아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이나 사례를 말한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매년 20개소를 선정해 나가 5년간 100개의 마을 및 복원사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사례를 발굴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의 우선적 지원과 환경부장관의 지정서 및 인증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 농림부(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생태관광 및 생태체험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표 2-3-8> 자연생태 및 복원우수마을 선정 현황

소 계	자연생태 우수마을		복원 우수마을
	보전우수	조성우수	
14	8 (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 경북,경남2)	3 (부산,충남,전남)	3 (대구,광주,경기)

<표 2-3-9> 자연생태 및 복원사례 우수마을

구 분		지 역	마 을 명	소 재 지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우수	경기	양평 명달리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강원	평창 효석마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충북	단양 사동마을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전북	남원 삼산마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전남	무안 상동마을	무안군 무안읍 용월2리
		경북	영덕 옥계리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경남	남해 가천마을	남해군 남면 가천리
	하동 상평마을		하동군 악양면 상평리	
	조성우수	부산	물만골공동체	연제구 연산2동 산176-55번지 일원
		충남	홍성 문당마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전남		곡성 가정마을	곡성군 고달면 두가1구	
복원사례우수지역		대구	대곡동 수목원	달서구 대곡동 284번지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경기	수원천문암골	장안구 광교동 문암

<표 2-3-10> 자연생태우수마을 : 보전우수마을우수마을

선정지역	선 정 근 거 (마을 특징)
<경기> 양평 명달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자연환경 및 경관 - 임산자원이 풍부한 통방산과 경치좋은 명달계곡에 인접 - 천연기념물(장수하늘소, 독수리 등)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 휴식지 지정·관리, 야생화(금낭화)군락지 보존 -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활동 - 마을 뒤편 통방산의 산림보호활동 및 주변지역 육림사업 전개 -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 명달리 녹색산촌추진위원회 자율결성 및 활동 - 환경친화적 주택설치로 주변경관 보호
<강원> 평창 효석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 태기산과 청태산을 배경으로 마을앞으로 흐르는 홍정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와 희귀종인 금강모치가 서식 - 이효석 소설의 배경처럼 메밀꽃의 경관이 연출되는 곳 - 취락구조의 자연성, 지역문화, 주민활동 등 - 전형적인 산골마을의 모습을 유지 - 마을에서 매년 효석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 - 평창환경보호연합을 구성하여 환경가꾸기 활동 전개
<충북> 단양 사동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 소백산 도솔봉아래 첫동네로 산림이 울창하고, 노루·고라니·열목어 등 야생동물과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 소백산국립공원이 인접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중 - 취락구조의 자연성, 지역문화, 주민활동 등 - 새마을운동으로 초가는 사라졌으나 흙벽돌집도 잔존 - 매년 정월보름 마을액운을 쫓는 행사(동고사) 실시 - 방곡장작가마예술제 등 문화활동 실시
<전북> 남원 삼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 지리산 아래봉아래 마을이 위치하며, 마을입구에 수백년된 송림이 형성되어 멋스러운 경관이 연출 - 인근 세걸산에서 발원한 소하천의 물길을 마을로 끌어들여 마을내 모든 집을 거치며 흐르도록 한 특이한 구조 - 취락구조의 자연성, 주민활동 등 - 마을 대부분이 돌담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시골마을 - 전체적으로 정돈이 잘된 깨끗한 마을로 전라북도에서 환경보전 실천 우수마을로 지정 - 친환경적농법, 야생동물밀렵행위 등 자율환경감시 실천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선정지역	선 정 근 거 (마을 특징)
<전남> 무안 상동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기념물인 백로·왜가리 서식지가 마을안에 있으며 저수지에선 홍연·가시연꽃등 희귀식물이 서식 · 마을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 취락구조의 자연성, 지역문화, 주민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농촌으로 꽃나무 식재 등 환경친화마을 조성 · 주민자체적인 전통보존회를 조직하여 마을전통문화계승 (전통음식보존회 최우수상 수상) · 백로·왜가리, 홍연 사진작품전을 통한 자연보호활동
<경북> 영덕 옥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송주왕산과 포항동대산 자락이 맞닿는 지역 ·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는 영덕오십천 상류 - 취락구조의 자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내 전통가옥이 많아 문화재관리구역으로 지정 - 영덕오십천 은어 방류행사 등 주민활동 활발
<경남> 남해 가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취락구조의 자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바다에 접한 농촌마을로 옛모습을 간직한 풍경 · 농업마을로 계단식 다랭이 논을 그대로 보존 - 다양한 생물자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뒷편에 얼레지, 용담, 춘란 등 야생식물이 자생 · 마을하천으로 참게가 있고, 수달의 흔적이 있음 · 가천해안에는 겨울에 가마우지가 집단서식함 - 주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해안정화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행사 활발히 전개
<경남> 하동 상평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여건 및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끝자락과 섬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 · 마을 앞 평지에 천연늪지(동정호, 약 15만㎡)가 위치 - 취락구조의 자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으로 생성된 마을로 전통가옥이 보존되어 있고 마을가운데로 계곡물을 흘려 용수로 사용중 ·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되었던 마을로 토지문학제가 열리고 있는 마을임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표 2-3-11> 자연생태우수마을 : 조성 우수마을

선정지역	선 정 근 거 (마을 특징)
<p><부산></p> <p>물만골 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빈민촌을 생태마을로 가꾼 공동체 모범마을 · 황령산 생태계복원 : 아파트촌건설의 도심지 재개발계획에 맞선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마을 조성 · 황령산 임도 및 순환도로주변 토착식물 복원, 군락지 조성 등 생태계복원 자율활동 전개 -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정착(쓰레기 배출없는 마을 조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 · 자원재활용 철저히행으로 주민공동기금 조성 - 마을 건설공동체 운영 · 마을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며 생태환경에 어울리는 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됨
<p><충남></p> <p>홍성 문당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농업마을 조성 · 전국 최초로 마을전체가 참여하는 오리농법을 시행중 · 친환경농법 시범실시 -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장 운영 및 재생폐기물 분리수거 · 생활오폐수의 정화처리(부레옥잠 활용 등) - 지역주민활동 · 환경농업교육 실시 및 도·농교류 활성화 · 풍경이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 마을 곳곳에 고유수종 식재
<p><전남></p> <p>곡성 가정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지형을 활용한 농촌체험장 활용 · 섬진강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지역적 여건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강변에 4개의 하이킹코스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자연과의 교류기회 부여 - 녹지공간의 활용 · 마을 뒷산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농촌체험 방문객이 울창한 송림을 만끽하도록 배려 - 자원순환형 생활양식 · 행락객이 많이 찾는 일부 강변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주민이 자율관리 ·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장 설치, 오리농법 실시 등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표 2-3-12>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

선정지역	선 정 근 거 (마을 특징)
<p><대구> 대곡동 대구수목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90까지 쓰레기매립지로 사용된 공간에 지역의 자생식물과 약용 식물 등 1천여종의 식물을 전시하는 전문 수목원 조성 - 복원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후 서식식물이 30여종에서 1천여종으로 증가 · 개장이후 평일 최대 5백명, 휴일 최대 1천여명이 방문하는 주민생태 교육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구 시내 순회관광코스로서 개발 -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에 “내나무 심기”행사 실시 · 중, 고,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장으로 활용
<p><광주> 운천저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도시화로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악취 및 훼손된 저수지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복원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의 자정능력 회복으로 해오라기, 왜가리, 쇠물닭 등 많은 조류가 서식하는 도심지생태공원으로 변화 · 연꽃과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시민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
<p><경기> 수원천, 문암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을 관통하는 수원천을 옛모습으로 재현하여 상류의 문암골과 이어지는 하천생태계 복원 - 복원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천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학생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 하천변에서 각종 전시회개최등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문암골 반딧불이서식지 - 광교저수지 - 수원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축(軸)이 연결 · 문암골은 수도권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돌담, 토담 등 자연적 취락구조가 많이 보존된 농촌마을로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임

(4)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산림기본법 제8조 및 298조에 의거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시책 및 추진방향은 산지·산림·산촌을 통합하는 종합개발방식 유도, 소득원 개발, 정주환경개선, 전통문화계승, 도시와의 교류촉진 등 산촌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진흥 도모, 산촌의 특성을 살린 유형별 모델내용을 참고로 개발목표 및 중점 투자방향 설정, 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 있는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 산촌실태조사를 통해 산촌을 구분하고 진흥산촌을 지정(498개 읍·면)하여, 마을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에 따라 특색 있게 종합개발 하며, 산촌의 위치, 규모에 따라 투자유형 및 투자규모를 차등화하여 추진한다.

<표 2-3-13> 산촌유형

구 분	내 용
산 림 소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나물, 약용식물, 관상수등 지역특산 단기소득원 생산지원 • 산림자원조성, 사방사업등을 집중하여 노임소득 창출 • 지역특성에 따라 목재집하장, 톱밥제조공장 등 유통·가공시설 유치 • 4계절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 특화사업 개발(1지역 1특산품)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특산물판매장 등 휴양림지원시설 확충
휴양림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공간 확충 •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민박유치 • 도시민과 산촌을 연결하는 산림체험프로그램의 상품화
농림업 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를 활용한 지역특산 단기소득원 개발 • 농림축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토지공급

2007년까지 총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14억원(지원 12억원, 융자 2억원)을 투자하며, 보조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은 <표 2-3-16>과 같다.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표 2-3-1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9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 (예산안)	2003~2004년
사 업 량		47	12(17)	17(17)	17(15)	45(35)
사 업 비 (백만 원)	계	49,169	24,961	25,707	26,374	97,624
	보 조	27,356	13,014	13,387	16,201	51,144
	용 자	13,013	6,827	7,040	3,633	26,560
	지방비 자부담	8,800	5,120	5,280	6,540	19,920
		-	-	-	-	-

※ ()내는 사전설계 사업물량임.

<표 2-3-15> 주요사업별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계			14억원
보조금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반조성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 문화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시설 등 • 환경정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방지시설 등 	5억원
	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촌산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산로 등 이에 준하는 산촌휴양시설의 설치 및 소득기반조성 사업 등 	7억원
용 자	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식물, 특용작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흑염소·토종닭·한봉 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소득사업 	2억원
	주택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 • 주택 증·개축 	

<표 2-3-16> 산촌유형별 개발모델 및 투자방향

유 형	대상(입지조건 등)	투 자 방 향
휴양림 연계형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 인근마을 - 입상이 좋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배후도시에서 1~2시간) - 국·도립공원 인근 또는 휴양관광지정 마을 등 - 휴양관련 소득이 높고 취업인구중 휴양종사자가 많은 지역 - 기타 등산객이나 인근관광지 방문객이 많은 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과 특산물 판매로 소득을 증대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경관림 조성을 고려한 산림사업 - 주택은 전원주택형으로 개량 민박 유치 및 산촌이미지 제고 - 도로·주차장등 기반시설 확충, - 휴양림 지원시설(판매·편의시설 등)과 상하수도등 편의시설 확충
산 림 소득형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림집단화 지역 - 유무형 자원이 풍부한 지역(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소설의 무대·배경등 무형자원) - 임산물 주산단지 권역내 지역 - 협업체 또는 영림단 운영으로 산림소득이 높은 지역 - 청장년중심의 임업노동력이 풍부한 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임산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중점투자 < 자원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임산물을 이용 1지역 1특산품 개발 - 지방청·연구기관과 연계, 소득사업 지원 - 역사·문화자원을 중점 부각하여 지역 Identity 제고 < 노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영림단 운영으로 노임소득증대와 질 높은 산림사업 추진 - 연간 지속 작업량 확보로 실질 노임소득 보장
농림업 복합형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임업기반시설과 병행하여 목재집하장, 가공공장 등 유통,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득원개발에 중점 - 농·임·축산업(임간방목등)을 병행 - 한계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산지과수, 산나물재배등) - 진료소, 공동판매장등 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산촌의 기지로 개발
종 합 개발형	①+②형, ①+③형 ②+③형 또는 ①+②+③형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업인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사업 등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관광개발을 선택하고, 대규모 외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중심의 대중관광지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규모 대중관광지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광지 조성 재원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지역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외부인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관광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성”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의 참여와 농촌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이 아니라, 도시자본만 살찌우고 쓰레기만 남기는 관광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의 관광패턴이 대중관광에서 연성관광 즉, 농업, 자연, 역사, 문화, 지역 축제 등을 주제로 하는 대안관광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강원도·순창군·금산군 등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관광개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의 자치단체에 한정된 경향이다.

(1) 강원도

강원도는 1998년 11월 신지식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21세기 강원도형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국 최초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의 추진방식은 마을 주민 스스로 합심하여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매년 평가를 통하여 우수마을에 마을당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책정시 우선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운동은 마을 특성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는데 지난 3년에 걸쳐 선정된 우수마을들의 유형은 농수산물 특성화, 그린투어, 친환경농업, 산촌마을, 어촌마을, 친환경 생태마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소비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생산 현장을 관광 시장화하는 「관광농업」, 그리고 청정 브랜드화로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농업마케팅」을 통한 마을 특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우수마을가운데 상당수의 마을이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그간 40개 우수마을(1999년 10개마을, 2000년 15개마을, 2001년 15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5억원씩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발굴하고 특성화해서 "21세기 새농어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한 우수마을의 유형 농수산물특성화(17개마을), Green Tour 특성화(2개마을), 친환경농업특성화(5개마을), 산촌마을특성화(10개마을), 어촌마을특성화(2개마을), 생태마을특성화(4개마을) 등과 같다.

(2) 순창군

전라남도 순창군에서는 지역특성상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농림산물의 유통과 시장경쟁의 취약성, 농촌의 노령화의 현실 속에서 향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관광산업과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발굴,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최초로 21세기 새로운 지역전략운동으로 그린투어리즘을 1996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³⁴⁾

1996년 일본 일본후쿠오카현 우끼하정과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시작으로, 그린투어리즘 국제권위자를 일본에서 초청, 군민을 대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여 실무자 해외선진지 시찰을 통한 전문확대와 국제간 정보교류와 연구를 위한

34) 임득춘,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매력 부각,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p.52.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아시아 6개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대만, 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그린투어리즘회’를 발족하였다.

민간주도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국제화연구회’를 조직, 그린투어리즘 보급확산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으며, 1999년 10월 아시아 3개국(한, 중, 일)이 참여한 제3차 아시아 그린투어리즘총회·심포지엄을 순창군에서 개최하여 국제정보교류를 통한 한차원 높은 발전을 도모하였다.

1999년 12월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0~2010년(11년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제1단계(2000~2002)	아름다운 경관조성, 주민의식개혁과 인재양성
제2단계(2003~2006)	기반시설정비, 지역주민의 서비스의식 정착
제3단계(2007~2010)	도시와 농촌교류본격화, 각종 그린투어 프로그램개발

또한 ‘순창군그린투어리즘 육성조례’³⁵⁾와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연구회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민간주도로 실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그린투어리즘 선진군의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관내 주민교육과 외부기관에 대한 특강, 그린투어리즘 순창포럼개최 등을 실시하여 외부연구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승축제를 개최하고, 청정자원을 이용한 보리 및 특화작목 재배 등 환경농업 실천, 민간한방약초원 조성, 겨울철 썰매타기,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테마관광코스로 개발, 도시민들을 위한 메뚜기, 우렁이, 미꾸라지 잡기행사 개최, 섬진강체육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 섬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자연생태하천 조성, 비목공원 조성, 단오절 성황대신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경제·사회·환경보전·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표 2-3-19>와 같다.

35) 부록 참고

<표 2-3-17>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구 분	내 용
지역이미지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과 전통을 살린 지역 이미지 구축 • 다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도시인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체재할 수 있는 여건조성 • 도시인이 즐겨찾는 분위기 조성 • 그린투어리즘 대학설립운영 • 계절별 강좌 개설 • 학술세미나 토론회 개최 • 향토문화 관광자원 개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접촉, 교류를 통한 친숙 관계유지 • 주말농장 등을 매개로 가족적 연대의식 함양 • 도시와 농촌의 자매결연 추진 • 특산물 시장개척을 통한 상호 이익 보장 • 지역연고자를 이용한 방문객 증대 방안 강구 • 꽃화원 조성과 매년 꽃 축제 개설
손님맞이 체제정비와 기반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는 모델지구 개발 기반조성 •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 마을 집단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 • 농업체험코스 등 프로그램 개발 • 체험안내자의 양성과 친절교육 • 토속음식 연구개발

(3) 금산군³⁶⁾

금산군에서는 인삼과 약초,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 수준 높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금강의 최상류구간 27km가 통과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1,000개의 자연공

36) 김행기, “신비의 건강마을, 금산군 민박여행”,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한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원」을 범군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서 최고 품질의 인삼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유통시키는 가장 큰 인삼약령시장을 가지고 있다.

금산에서는 특산품, 민속, 자연자원 등을 소재로 하는 4계절 축제가 매년 열린다. 봄에는 “산벚꽃축제”, 여름에는 “금강민속축제”, 가을에는 “인삼축제”, 음력 정월대보름에는 장동 달맞이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금산군은 녹색관광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20개의 인삼약초꽃마을을 가꾸오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이 금산에 와서 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아울러 청정 민박마을로 육성해 도시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도록 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펼치는 사업이다.

민박마을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관광자원이 있는 곳, 인삼약초꽃을 볼 수 있고 인삼약초캐기 등 농촌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만한 곳, 최소한 5호 이상이 참여 가능한 마을, 넉넉한 시골인심과 농촌의 정취를 느끼기 충분한 곳, 최소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 마을을 포함한 주변에 전설과 토산품을 비롯한 자랑거리가 있는 곳, 마을 내 주거 건물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곳 등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민박마을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를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마을의 유래, 전설, 유적지, 문화관광지, 특산물 등 자랑거리를 소개토록 하고 있다. 또 시설물도 민박인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개·보수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골정취를 느낄 수 있게 정비하고 식사도 인삼약초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과 신선한 채소류, 산나물, 민물고기, 토속자연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민박마을은 인삼약초꽃 마을 중에서 9곳을 우선 선정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일반 마을에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외지인의 집객력이 큰 축제장 주변마을이 주로 선정됐으며 총 89가구에 민박이 가능한 방은 175실, 수용인원은 694명이다.

<표 2-3-18> 금산군의 민박마을 현황

구 분	성 격	내 용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5가구)	민속체험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 두부와 묵, 탐제와 디딜방아 놀이
금성면 다락동마을 (5가구)	약초재배	접시꽃마을, 칠백의총 등 역사문화자원 전통민속주인 인삼주 양조장
남일면 홍도마을 (10가구)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홍도꽃, 12폭포, 용담댐
제원면 낙안마을 (7가구)	수변휴양	금강과 기암절벽, 민물고기와 자라, 다슬기, 어죽
군북면 자진뱅이마을(5가구)	산벚꽃마을	청정오지마을, 산악자전거, 다양한 산나물 요리
남이면 용동마을 (8가구)	수변휴양	노송군락, 용바위전설, 절터, 폭포, 용시암 (샘물), 용소, 보석사, 은행나무
남이면 개안마을 (5가구)	인삼최초재배마을	개삼터, 진악산등산로, 관광농원, 느티나무
부리면 벌말마을 (17가구)	전통민속마을	금강민속축제, 물폐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민 물고기 요리, 쏘가리 매운탕
부리면 수통마을 (22가구)	수변휴양마을	적벽강, 기암절벽, 청정강변, 민물고기, 토종 닭, 손두부

민박마을은 인삼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활용이 가능해 농가소득의 기여도가 높다. 민박마을 시설은 기존의 민가와 빈집을 활용한다. 시골 정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골동품, 농기구, 토속음식 등으로 전통적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고 있다. 안내표시판 역시도 가능하면 목재를 이용해 고전적인 운치를 더하도록 했다. 외지손님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민박마을 안내표시판을 설치했으며 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기간 동안 유인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각종 축제 홍보물에 민박운영내용을 게재, 효과를 높이고 있다. 민박마을 운영자에 대해서도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인삼약초마을 안내서도 제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박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추억이 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특별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 인삼약초 술담그기: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특산품을 재료로 인삼술 또는 약초술을 병에 담아가기
 - 인삼약초 캐기: 주인의 안내로 인삼의 효능 등의 설명을 듣고 직접 채굴해 적정가격으로 구입
 - 과일따기: 금산의 새로운 특산품인 갯잎,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직접 따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 전통장류 만들기: 시골 어른들로부터 전통 방식의 된장, 간장,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구입
 - 약선요리 만들기: 삼계탕 등 인삼약초를 활용한 보양식 만들어 먹기
- 이와 함께 금산에 민박을 오신 외지인들은 민박마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건강여행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 인삼약초시장 돌아보기: 세계적인 인삼약초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최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장날에는 평일보다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재래시장의 특색과 현대식 쇼핑센터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곳이다.
 - 민물고기와 다슬기 잡기: 금강에는 다슬기를 숙주로 하는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할 정도로 다슬기가 많다. 야행성인 다슬기를 후래쉬를 이용해 밤에 잡아보는 재미는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추억거리이다. 어항과 낚시 등을 이용한 민물고기잡이도 재미를 더한다.
 - 수려한 금강, 아름다운 산골, 정겨운 마을, 다양한 자연의 꽃밭 등이 이어지는 5개의 드라이브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 충절의 현장 방문: 금산은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육백고지 등 충절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산교육장이 많아 자녀들의 호국정신을 일깨울 수 있다.
 - 인삼약초사우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인삼약초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 특색 있는 먹거리 여행: 금강변 민물고기 요리, 대둔산 가는 길의 한우 요리, 충절로의 추어탕 등 노선별로 아주 특별한 금산만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 이색스포츠 즐기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도로사이클 등 이색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금산군은 지역적 특성을 민박마을 조성사업과 연계시켜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주말농장, 직영농장 등 농사체험 활용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광기념품개발,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녹색관광 프로그램이 더욱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박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주거환경 및 열악한 편익시설, 생활체육공간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농협

농협에서는 1998년부터 팜스테이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팜스테이마을이란 기존의 단순한 농가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농촌 문화체험과 계절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인근 지역명소를 관광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선정기준은 풍부한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적 등 지역적 개성이 강한 곳, 농장·과수원·목장 등 영농체험이 가능한 지역, 가급적 자연부락으로 다수 농가가 공동참여 가능한 곳 등이다. 팜스테이마을의 육성실적 및 계획을 보면 <표 2-3-21>과 같다.

<표 2-3-19> 팜스테이마을 육성실적 및 계획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순증)	-	(43)	(40)	(40)
누계(개소)	46	50	90	130

또한, 팜스테이 마을의 주요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자연자원 및 문화관광, 생태관광, 전통민속놀이, 농사체험, 농산가공체험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별 특색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2-3-23>과 같다.

제 2 장 농어촌발전과 그린투어리즘

<표 2-3-20> 주요체험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자연자원 문화관광	유명산, 명승지, 강, 호수, 낚시터, 온천, 섬, 약수터, 축제, 이벤트, 천연기념물, 박물관 등
생태관광	철새도래지, 갈대, 동백, 동굴, 생태축제, 갯벌, 늪지 등
전통민속놀이	농악과 탈출배우기, 인형극하기, 자치기, 팽이놀이, 제기차기, 기마싸움놀이, 널뛰기, 그네타기 등
농사체험	실습농장, 모내기, 벼베기, 파종하기, 과일따기, 가지치기, 고구마 캐기, 비닐하우스, 축산단지 및 농산물가공 공장견학 등
야외놀이문화	물고기잡기, 물놀이, 수영하기, 모닥불놀이, 식물 및 곤충채집, 하이킹, 등산, 각종레저활동 등
농산가공체험 및 축제참가 등	김치담그기, 장담그기, 손칼국수만들기, 두부만들기, 한과만들기, 떡만들기, 지역별 축제행사 참가 등

<표 2-3-21> 지역별 특색프로그램 요약

지 역	운영개소	내 용
경기	4개마을	전통음식만들기, 어린이 담력훈련, 곤충채집, 밤줍기, 햇불놀이, 성지순례, 가재잡기, 쫄면만들기, 팽이놀이 등
강원	5개마을	장담그기, 빙어낚시, 병판축구대회, 허브나라관광, 황토방 삶 체험, 민물고기, 동동주담그기, 첼로연주회 등
충북	4개마을	다슬기줍기, 어항농기, 도토리줍기, 민물고기잡기, 포도즙만들기, 전통민속놀이, 대추박물관 견학, 영화축제(8월) 등
충남	4개마을	돌담쌓기, 수석잡기, 인삼여죽만들기, 가족단위밤줍기, 조개잡기, 바다낚시, 흑돼지훈제구이요리, 생태관광체험 등
전북	6개마을	젓갈담글기, 황토방체험, 갯벌체험, 건강강좌세미나, 멧돼지사육, 조각공원관람, 식물채집, 다슬기줍기 등
전남	4개마을	두릅·산나물 채취, 산수유 열매채취, 해수탕(찜), 산나물채취, 평사냥, 캠프화이어, 계곡물놀이, 지리산 온천욕 등
경북	3개마을	손두부와 메밀묵만들기, 하회별신굿 탈놀이, 민속마을 전통생활체험, 도예실습, 장승관람, 황토방 체험 등
경남	11개마을	청학동생활체험(서당훈장교육), 세계최대 우포늪견학, 얼음골 계곡관광, 토봉사육, 달집태우기, 메뚜기잡기 등
제주	2개마을	민속마을 생활체험, 바다낚시, 고사리채취, 선인장재배, 유채꽃 큰잔치, 재피채취 등
인천	2개마을	조개잡기, 소라따기, 계잡기, 고구마묵만들기, 굴따기, 기암괴석탐사, 망둥어 낚시대회, 술빚기, 메뚜기잡기 등
광주	1개마을	야생동물 사료주기, 고구마즙기대회, 도예공방견학, 고사리꺾기, 곤충채집, 모닥불피우기, 아궁이불때기 등
대구	1개마을	알밤줍기, 사과따기, 메뚜기잡기, 모내기, 손두부만들기 등
울산	1개마을	전통음식만들기, 곤충채집, 빙어낚시, 암각화관람 등
계	48개마을	

3.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 문화관광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고 대신 농림부(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개발사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승우·민상기(1997)³⁷⁾의 연구에 따르면, 관광농원개발사업은 농업본연의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기본시설은 수익성이 저조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의 확장은 물론 기존의 시설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 자금회수가 원활하고 관리·운영이 손쉬운 편익시설의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외(1998)도 관광농원은 대부분 1~2인 위주의 소수인에 의해 개발·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농장조성 및 작목입식면적을 잘지키지 않고 있다. 농산물 직매장, 축사, 창고 등 농업부대시설 이용도가 저조하고, 위락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개발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농원에서 운영자금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내용은 먹거리 위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농원관리, 이익관리, 고객관리,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에 대한 조영숙(2000)의 연구결과³⁸⁾에서도 농촌관광시설 운영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대부분이고, 관광객 방문은 여름철과 겨울철

37) 유승우·민상기,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R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38) 조영숙, “농촌·농업관광사업 운영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제21권 제12호, 농촌생활연구소, 2000, pp.17~23.

에 집중되어 있다. 관광농원에 대한 정책지원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규모가 적고 지원조건도 불리하며, 민박마을은 용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자율이 관광농원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조항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책지원도 시설자금에 한해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농촌·농업관광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도시의 호텔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관광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어렵고, 프로그램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첫째, 시설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하였고, 둘째, 농촌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³⁹⁾고 할 수 있다.

39)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13.

제3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초록마을 : 강원도 용호리

초록마을 용호리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 마을로 앞으로는 파로호를 끼고 있고 뒤로는 용화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총 549ha 면적 중 농경지 90ha, 임야 411ha를 차지하고 있고, 48가구 150명의 주민중 민박, 낚시터, 가게를 하는 8가구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가 주관하는 새농촌건설운동 공모를 계기로 생태마을특성화 계획을 세우는 한편 농촌관광을 접목하게 되었다. 2000년 5월부터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3년간 5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금으로 친환경적(전통한옥) 마을회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마을장학금 기금 2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고, 현재 마을 장기발전세부계획을 수립이다. 구마을회관은 정보센터로 개조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www.yongho.org)와 안내팸플렛을 제작하여 농산물 직거래, 도농교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



램으로는 도시민 초청 산나물 채취대회 개최, 체험농장 운영, 농가 도시민 100 가정 알기 추진, 사이버 주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홈페이지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제휴할 계획이다.

소득원 개발을 위해 마을단위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정란, 오이피클, 토종꿀, 건고추, 콩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추진하고 있다. 현재 5가구가 농가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박, 낚시, 식당, 농업, 관광을 패키지로 묶는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 아리랜드 : 충남도 남전리⁴⁰⁾

아리랜드는 아리랑랜드의 준말로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에 위치하며, 부지 10만평, 동백동산 5,000평, 경작지 45,000평으로 60년 간 대를 이어 상생의 이념으로 운영하는 농장이다.

1987년부터 “열린 이웃”이란 명칭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찾아가는 농업이 아니라 찾아오는 농업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으로의 방향전환을 하였다. 농촌의 풀꽃, 수목, 작물, 가축, 지렁이, 두더지 등 생태계의 모든 것이 도시주민(어린이 학생포함)에게 좋은 교육 체험거리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농촌을 자연과 인간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곳,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농촌 전체를 도시주민의 쉼터로 조성하여 도농녹색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을 매개로한 도·농 교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 부터 “동백축제” 개최하고 있으며, 음악회, 시낭송, 야생화 전시회와 환경농산물 및 향토음식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갯벌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실시한 팜스테이 사업은 계절별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고장에서 체

40) 정의국,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장, 아리랜드”,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을 요약하였음.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힘가늌한 앵두따기, 꺾질, 조개캐기, 게잡이, 바다낚시, 해수욕하기, 조개잡이, 가든파티 등도 실시하였다.

아리랑 농장에서는 자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인 유기농 야채, 죽염제품, 토종 돼지, 오리농법 쌀 등의 생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자원 (금강하구 관광단지, 한산모시 전시관 신성리 갈대밭, 금강철새 도래지, 장항송림 삼림욕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표 3-1-1> 주요프로그램 내용

구 분	내 용
동백축제	환경농업발전 및 도농교류 음악회, 시낭송, 노래자랑, 환경농산물, 향토음식
갯벌탐사	자연환경 및 갯벌생명 체험 조개잡이, 모래꺾질, 바다환경 조사 등
농사체험	계절별 농사체험, 앵두따기, 상추수확

3. 환경농업마을 : 충남도 문당리⁴¹⁾

1993년부터 오리농법을 도입하여 현재 전체 81가구 중 40농가가 약 10만평인 농지에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다. 한편, 94년에는 처음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무농약

41) 주형로, “환경농업으로 특화하는, 홍성군 문당리”,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을 요약하였음.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품질인증에 합격했다. 98년부터는 유기채배 단체 인증을 받아 현재 연간 15,000가마의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가 홍성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재 문당리의 오리농법에 의한 오리농쌀은 96년 이후 홍동 농협과의 단지 계약 선수급 방식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1년 홍동농협과 전량수매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벼를 수매할 때 가마당 소정의 마을 환경기금을 떼었다. 그 돈이 적립되어 4,500만원이 되었다. 이 기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랐다.

적립금으로 환경농업교육관을 짓기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정부에 우리의 계획을 제출하여 일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00년 6월에 환경농업교육관이 착공되었고 12월에 준공되었다. 환경농업교육관은 생산자, 소비자, 어린이, 공무원들에게 환경과 환경보전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숙소는 각종 단체의 연수 및 견학 방문시 숙식처와 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홍성 환경농업교육관을 다녀간 방문객과 교육생은 1,700여명에 달하며 각종 회의 및 문화교실 참가자는 1,850명으로 총 3,505명이 환경농업교육관을 사용했다.

홍성 환경농업교육관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교육생들은 오리넣기, 오리의 활동 관찰, 흙밟기, 쭈 캐기, 고추 모종 심기, 숲 관찰, 강연 듣기,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 12월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서」를 만들었다. ① 넉넉한 마을 만들기, ②오손도손한 마을 만들기, ③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④자연과 조화되는 마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천 중에 있다.

제2절 국외사례

1. 영국

1) 그린투어리즘의 배경

영국에서 농촌에 대한 도시주민의 관심은 관광지 개발보다는 농촌다움의 보존쪽으로 기울었다.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이 제정되고 부터는 ‘농촌다움의 보호’가 도시계획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졌다.⁴²⁾

따라서 영국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 들어 시작되었으며, 농가민박사업은 1960년대 당시 농산물 과잉에 의한 농가소득의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 농가의 경영 다각화의 한 방편으로 모색되었다. 농가와 농장을 위한 관광은 이미 1960년대에 들어 농가민박의 형태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휴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⁴³⁾

2) 그린투어리즘의 원칙

1989년 전원지역위원회가 제시한 그린투어리즘 여섯 가지 원칙은 ①농촌역사나 경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개발 ②환경보전이나 레크리에이션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③지역분위기에 맞는 디자인 ④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⑤관광에서 이익을 얻은 자의 책임 ⑥마케팅과 계몽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또한 1990년 그린투어리즘심포지엄에서는 ①환경보전으로서 중요한 것(아름다운 경관이나 역사적 환경, 자연의 서식환경, 맑은 공기와 물) ②방문객 체험으로서 중요한 것(뛰어난 환경이나 따뜻한 대접 외에 숙박시설, 레크리에이션·스포츠시설, 각종 볼거리 등, 교통망, 주차장) ③지역생활자로서 중요한 것(농가

42) 강신겸·김정연,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29.

43)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p.22.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의 생활, 농업의 유지, 경제기반과 고용기회, 학교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유지, 지역주민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문화나 전통, 추억, 조용함) 등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영국그린투어리즘의 시사점

영국그린투어리즘의 시사점은 첫째, 그린투어리즘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둘째, 전체적인 농촌지역전략이 필요 셋째, 국가기관·지방정부·국철·레저사업자·민간단체·주민단체간의 협력 넷째, 경영의 사고 강조 다섯째, 주민주도의 원칙 여섯째, 녹색관광객의 필요 등을 들 수 있다.⁴⁴⁾

구 분	내 용
그린투어리즘의 정신	농업, 농가생활, 농촌장래, 아름답고 풍부한 환경보전, 농촌방문자의 즐거움 증대, 지역문화의 주민의 생활, 이들간의 균형
전체적인 전략의 필요성	지역전체로서의 생활, 문화, 환경의 이미지 표출방법 창조와 보전의 대상과 지역생활과의 연관성 등
빠트릴 수 없는 제휴	국가기관·지방정부·국철·레저사업자·민간단체·주민단체 등의 협력
추진방법으로서의 경영	현장중심의 사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및 가능성 모색,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가는 방안모색
주민주도의 원칙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창조적인 과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활동의 필요
녹색관광객	방문객에게 그린투어리즘의 정신을 전파 농촌의 활성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농촌의 소중함, 농촌을 즐기는 법 등에 대한 계몽활동, 해설 등을 위한 프로그램

44) 강신겸·김정연, 앞의 책, pp.61~65.

2. 프랑스

1) 그린투어리즘의 배경

일년 내내 최고 두 달 가량의 휴가를 보내는 프랑스인은 시골에서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하며 주로 여름기간 동안 바캉스를 즐긴다.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현재 유럽 제1의 농업생산국이며 식품수출액 기준 세계 제2위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의 감소, 농촌공동체의 파괴, 실업의 증가 등 농촌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의 건축물이나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이 결합되어 그린투어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⁴⁵⁾

2)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프랑스에서는 해안에서의 관광을 블루투어리즘(blue tourism), 산악에서의 관광을 화이트투어리즘(white tourism), 전원에서의 관광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도시에서의 관광을 라이트 투어리즘(light tourism)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진흥센터(TER)에서는 “전원지역 외에 해수욕장이나 스키장 등 리조트지역으로 개발되지 않은 해안과 산악지역도 포함한 농촌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그린투어리즘의 특징

프랑스 그린투어리즘의 특징은 민박 및 별장, 캠프장 등 다양한 숙박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박경영자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나 도의회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에 가입한 민박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새로운 4가지 민박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45) 산림청, 앞의 책, p.17.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구 분	내 용
대가민박	가족이나 단체가 자취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한 채(또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유형
대실민박	아침식사가 포함된 침실을 제공하는 유형
어린이민박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부모가 데려오지 않고 학교가 쉬는 시기에 가정(주로 농가)에 받아들이는 민박
농가캠프장	농가건물 근처에 있는 캠프장
간이민박과 단체민박	도보, 승마, 자전거 등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이민박과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체민박
프레스티지 민박	품위가 있는 고급민박으로서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특별한 민박
낚시민박	낚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낚시대, 보트 등)와 정보를 갖춘 대가민박
눈의 민박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박
누구나 갈 수 있는 민박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민박

3. 독일

1) 그린투어리즘의 배경

독일에서는 그린투어리즘보다는 전원관광(rural tourism) 또는 농업관광(agri-tour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의는 전원에서 보내는 휴가와 농가에서 보내는 휴가로 나누어져 있다.

독일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업조건이 불리한 바이에른 주 남부 오스트리아와 접경지역인 알프스산악지대에서 시작되었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농업규모 확대 또는 대규모 경영정책을 추진하는 북부지방과는 달리, 소규모 가족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농가들간에 협력관계를 맺고, 농기계에 대한 과잉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농업진흥정책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낙농 및 축산과 관광을 연결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업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농촌과 농업을 지키려는 운동은 인접한 바덴주, 뷔르템베르크주 등으로 확산되었다. 숙박업에 농가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농가에서 휴가'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었다.

2) 그린투어리즘의 특징

독일 그린투어리즘의 중심은 “농가에서 휴가를”사업이며, 이의 핵심은 B&B (침실과 아침식사 제공)형태의 농가민박이다. 독일의 농가민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숙박업은 전업이 아닌 농가의 부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숙박객이 취사할 수 있도록 주방이 딸린 방을 빌리는 형태의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B&B는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족끼리만의 휴가성향 및 농가주부 일손이 많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농가에서 휴가를’사업은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 외에 독일농업협회(DLG)와 식량농업부 보급정보서비스협회(AID)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독일농민연맹이나 농민은행 등도 지원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농촌지역 관광사업은 도시관광회사와 지역숙박업자, 농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독일어로 “농가에 손님을 모십니다(Beim Bauern Zu Gast),” 또는 “농가에서 휴가를(Urlaub auf dem Bauernhof)”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가는 25만호이며, 이 중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는 농가는 약 1만 7천호로 전체농가의 7%이며, 농가 그린투어리즘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연간 150~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농가의 그린투어리즘은 1960~70년대 개인주택이나 축사 등 농가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제공한데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별채형 아파트먼트(콘도)를 갖춘 곳도 늘어나고 있다.

농가 그린투어리즘 사업유형은 주류(周遊)형과 체류(滯留)형으로 구분된다. 주류형 그린투어리즘은 농가가 레스토랑과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파머스 숍(Farmers' Shop)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체류형 그린투어리즘은 농가가 민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체류기간 동안 숙박 관광객에게 레스토랑과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파머스 숍(Farmers' Shop)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규모는 최대수 상한선(25개)으로 정하고 상한선 이하의 농가에게는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관광관련 정부부처와 농업관련 정부부처가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가휴가협회의 운영을 재정 지원하고 지역의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도 농가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하고 있다. 민박농가가 민박용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5. 미국⁴⁶⁾

미국의 농촌관광(Rural Tourism)은 농촌지역 사회개발과 농가들의 사업이 연계되어 발전하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근 3년 내에 1번 이상 농촌관광을 경험하였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미국은 일반적인 농촌관광개발 프로그램은 없으며, 농촌지역의 소기업(small business)지원, 지역사회 개발대책과 연계해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 주(Arizona, Montana, Kentucky, New Hampshire 등)의 County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 농무부 농촌경제연구처(ERS)에서도 WTO 체제 하에서 Green Box로써 농외소득 대책으로 사례를 조사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의 형태는 첫째, 문화유적지 농촌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이 있다. 과거 사람들의 생활, 문화 신념(faith)을 현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함께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과거 문화, 과거의 어려웠던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도전정신을 키우고 스스로의 정체성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단위에서 농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한다. 예를 들면, ① Virginia 남북전쟁유적지(Civil War Trail) 답사프로그램 ② North Carolina의 목공예단지 답사 program ③ 기타 : Oregon 옛날 직물단지, 지역별 축제(festival), 물레방아(동력원) 등을 상품화

46) <http://www.milenium.pe.kr/ustour.htm>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표 3-2-1> 유럽 및 태평양지역 국가의 그린투어리즘 현황

구 분	그린투어리즘 개념/유형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	지원조직, 체계	운영형태
영 국	farm holiday, green tourism	B&B로 대표되는 농 가민박, 농장박물관, 농장내점포, 공예센 터, 약초원, 클레이 사격, 정원 등	농가휴가협회 (farm holiday bureau), 전국농장매력물 네트 워크(national farm attravtion network UK), Countryside Commission	민간이 주도하고 정 부가 후원(정부가 농 촌관광을 위한 인프 라로서 성이나 공원 개발에 투자)
프랑스	green tourism, agritourism	바캉스촌, 대가민박, 대실민박, 임대별장, 민박예약시스템, 농 가레스토랑, 승마농 가, 캠핑, 농산물판 매, 농가스낵 등	Gites Ruraux de France 가족휴가촌협회, 세제 우대조치	민과 정부가 함께 주 도하고 있는 형태
독 일	rural tourism, farm tourism, agritourism	B&B, 농가민박, 콘 도형태의 숙박시설 (ferien-wohnung), 전 원호텔, 교육프로그 램, 승마, 우사체험 등	독일농업협회(DLG), 식량농업부 보급정보 서비스협회(AID), 농 지정비법, 보조금, 융 자, 사업창조 및 장려 프로그램 등의 정부차 원의 지원정책	정부의 역할이 타유 럽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강함
오스트리아	agritourism, farm holiday	B&B, 형태의 농가 민박, 농산물판매, 문화회관, 야외음악 당, 산책로, 피크닉 장, 전통음식점, 자 전거 하이킹, 래프 팅 등	지역농촌휴가조직, 농 촌 휴 가 협 회 (F a r m Holidays Association), 객실임대법(농촌휴가 경영은 타인을 고용하 지 않고 가족만으로 운영해야 함)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정 부는 지원보다는 제 한적 성격이 강함
이태리	farm holiday, agritourism	농가민박, 캠프장, 승마장, 농가레스토 랑, 농산물판매 등	농촌휴가협회(Agrituri st, Terranostra, Turismoverde), 농촌 휴가법	민간이 주도, 정부가 농업인을 타기업인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법을 제정하고 조 사연구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주정부가 협조 및 지원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구 분	그린투어리즘 개념/유형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	지원조직, 체계	운영형태
이스라엘	rural tourism, agricultural tourism	B&B, 농가레스토랑, 수영, 보트타기, 산책로, 박물관 관광 등	이스라엘관광부와 Golad Meir Mount Carmel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농촌관광을 위한 코스 개발,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res(SBDCs)와 관 광부 산하조직에서 타 당성 조사, 카운셀링, 마케팅 등을 지원	민간주도이나 정부지원
미 국	rural tourism, farm tourism, (farm vacation, ranch vacation)	B&B, cottage, 홈스테이, 농장체험, 목장체험, 낚시, 수영, 보우트타기, 승마, 피크닉 등	지역농촌휴가협회 (farm vacation association), ABBA(American Bed & Breakfast Association)	연방정부는 1980년 대부터 농민들이 농 장관광을 부가소득원 으로 고려할 것을 추 천하고 농가휴가협동 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
오스트레 일리아	farm tourism	B&B, 농장이나 목장체험, 농장레스 스토랑, 이벤트, 수영, 승마, 낚시, 산책, 야생조류관찰 등	Australian Farm and Country Tourism Association 등 지역마 다 이와 비슷한 형태 의 farm tourism association이 존재	민간에서 먼저 시도 정부는 수동적

출처 : 津端修一(1995), Yamazaki, Oyama, & Ohshima(1997), 채예병 (1994),
Fleischer & Pizam(1997), <http://global.australia.com/platc?US201292:27:140>,
<http://www.israel-mfa.gov.il/mfa/go.asp?MFAH0etd0> 에서 정리하여 편집 .

둘째, 농업중심 관광(Agri-Tourism)으로 이는 농업활동을 경험하고 농가에서 머물고, 식사를 함으로써 농업과 자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관광내용은 농사경험, 농사박물관(농기계 박물관 등), 과일채취(사과채취 등), 농산물 구입, 시음(와인 등), 선물구입, 숙박(팜스테이), 아침식사 등이고, 연계가능자원으로 해변·호수·보트타기 관광, 낚시, 사냥, 지역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6. 대만

대만의 그린투어리즘은 유희화되고 있는 산간오지의 농지와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33년부터 대만은 정부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농가민박사업을 추진하고 1991년부터는 대단위 휴한농업지구를 조성하였다. 그 때문에 현재 개원중에 있는 서비스농원의 수가 약 1,80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요즘 농촌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⁴⁷⁾

대만의 그린투어리즘에서 보여지는 주요한 특징을 바로 농민과 농협이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낸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농협은 그린투어리즘의 경영과 관리를 주관하고, 농민은 농지와 시설과 자본을 출자하는 분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익금도 시설보수나 규모확대에 대비해서 60%는 출자비율에 따라 농민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40%는 적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7. 일본

일본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축으로 하는 지역진흥전략의 하나이다. 개별농가가 산발적으로 도시주민을 상대로 경영하는 농가민숙(박)이나 농가레스토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지역)이 일체가 되어 범지역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진흥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은 유럽의 루럴투어리즘(rural tourism)이나, 에그리투어리즘(agri-tourism)보다 그 범위가 넓다.⁴⁸⁾

1) 그린투어리즘 현황

○ 도시주민의 욕구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농촌교류에 대해 여유 있는 생활, 자연을 추구하는 추

47) 이호철, 앞의논문, p.179.

48) 박광순 외, 일본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경인문화사, 2001, p.55.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세를 배경으로 농업·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도시주민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⁴⁹⁾

○ 농촌지역에 대한 기대

농촌지역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농촌교류가 진전됨으로써 ①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의 판매증가 ②신규취업의 장 창출 등이 기대된다.

○ 그린투어리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가 그린투어리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관광에 의한 파급효과” 및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에 대해 시정촌의 과반수 이상이 기대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고용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약40%의 시정촌이 기대이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셋째, 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시정촌은 25%정도에 불과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지역활성화에 대한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 그린투어리즘 인구

그린투어리즘인구는 농가민박의 숙박수를 지표로 하고 있다. 농가민박은 2000년 3월말 현재 약 5,000호, 이용자수는 약 870만명으로 추계된다. 2002년부터 초중학교가 주5일 수업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있어서의 위치

○ 그린투어리즘을 기초로 하는 도시농촌교류는 도시주민에게는 여유와 편안함, 농민들에게는 취업기회와 지역활성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분야로서 위치하고 있다.

○ 2000년 3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그린투

49) 이하의 내용은 그린투어리즘 전개방향, 농림수산성농촌진흥국, 2001의 내용을 번역하여 요약한 것임.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어리즘 등 도시농촌교류가 농촌진흥의 중요한 정책으로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 「농산어촌제제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은 ①도도부현기본방침 책정 ②시정촌계획의 책정(농용지의 보전 등 질서 있는 토지이용, 양호한 농촌경관의 보전·형성, 도시농촌교류시설의 정비 등) ③농림어촌체험민박의 등록 ④전국농림어업체험민박업협회의 책정 등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농촌지역주민의 합의형성을 기본으로 하고, 「농산어촌제제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의 시정촌계획제도가 그 수단이 되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3) 「금후의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식료의안정공급과아름다운나라만들기에대하여」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의 위치부여

○ 2001년 6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금후의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식료의안정공급과아름다운나라만들기에대하여」에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가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 2001년 12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는 「의욕과 능력 있는 경영체에 시책을 집중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의 추진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개성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 그린투어리즘 추진상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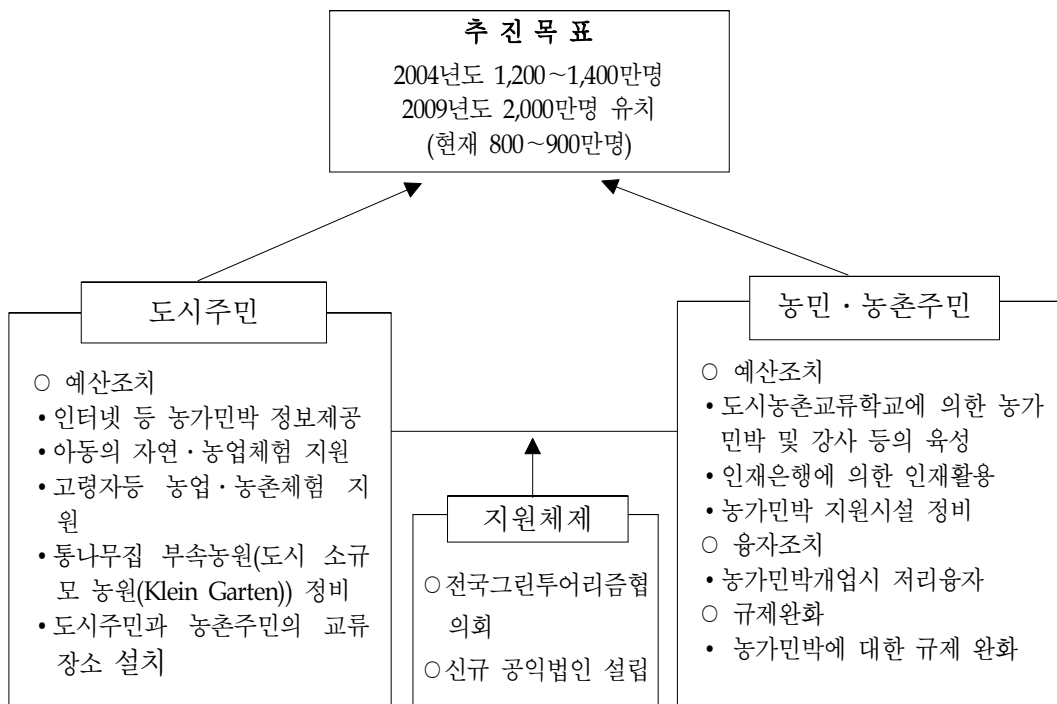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역사가 일천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에게 널리 보급·계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을 위해 농촌에서는 ①농촌경관 등 지역자원을 살려 도시주민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에게 판매하기 위한 컨셉을 만들고 ②도시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정보발신 ③도시주민을 받아들이는 소프트·하드양면에서의 체제정비 등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농촌지역에 있어서 도시주민을 받아들이는 체제정비에 대해서는 하드한 면은 지역농업기반확립, 농업구조개선사업,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특별대책사업을 통해 도시농촌교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농촌교류시설과 농가민박과의 연계 등 소프트한 면에서의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림 3-2-1] 농림수산성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체계

○ 시책의 방향

2002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관계의 구축을 향해 ①도시농촌교류를 담당하는 인재육성, 농촌에서 도시로의 정보발신력 강화 ②도시농촌공생·평온한 공간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표 3-2-2> 일본 정부의 성청별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

성청별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	성청별	그린투어리즘 관련 사업
농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 • 「농촌어촌에서 여유있는 휴가를」 • 중산간·도시 교류형 거점정비사업 • 중산간지역 활성화 추진사업 • 산촌진흥 등 농림어업 특별대책사업 • 자연휴양림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립공원시설정비 • 국민휴가촌·고향자연공원 국민휴양지 • 자연체험체류 거점정비(에콜로지 캠프) • 자연환경 보전활동 거점 정비사업 • 만남·안식 온천지 정비
임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지역 종합정비사업 • 자연휴양림 • 휴먼·그린 플랜 • 「산촌에서 휴가를」 특별대책사업 • 푸르름과 만남의 마을 정비 특별대책사업 • 「풍요로운 삼림조성 사업」 중산간 유형 	국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회복(refresh) 고향」 모델사업 • 「고향 C&C」 모델사업지구 • 「과소화 지역에 고향마을을」 모델사업 • 「고향경관」 추진모델사업 • 커뮤니티 아일랜드 추진사업 • 산촌도시 교류환경 종합정비 모델사업 • 과소지역체류시설정비모델사업
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도소리 마을·21모델사업 • 광역어업 활성화 구조개선사업 • 새롭고 아름다운 어촌조성 모델사업 • 마리노베이전 거점교류촉진 종합정비 • 어항교류광장 정비사업 	자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조성 특별대책사업/종합사업 • 리딩(leading) 프로젝트 • 젊은층 정주촉진 등 긴급 프로젝트
문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지역스포츠교류사업 • 농수성과 제휴사업 • 메아리학원교류사업 	통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규모사업활성화 추진사업 • 지역중소기업대책사업 • 전원(電源)지역 산업육성 지원보조금
운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캠프 촌(자동차여행 시설 정비) • 가족여행촌 • 청소년여행촌 • 향만 레크리에이션 시설 • 국제교류촌(국제교류거점시설 정비) • 마린·타운·프로젝트 	건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휴게시설(みちのえき) 사업 • 연안공동체(coastal community zone) • 컨츄리 파크 정비사업 • 리조트 파크 정비사업 • 레크리에이션 호수 정비담 사업

자료 : (재)21세기마을가꾸기모임 편, 『그린투어리즘의 계획과 실천』, 1998년 3월 (이노우에(1999) 17~30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표 3-2-3> 일본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구 분		지구명	특 징
농촌 경관	띠지붕농가	니가타현 타카야나기정	정사무소, 농협, 상공회 등으로 이루어진 「고향개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고령화,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띠지붕농가가 남아있는 농촌경관을 활용한 도시농촌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자연 경관	하천원류	기후현 미야촌	겨울철 스키민박을 운영하는 농가민박을 여름철에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천원류의 풍부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의 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농가민박을 연계하는 수입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체재형시민농원		나가노현 시가촌	북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려 1993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재형시민농원 「坊主山클라인가르텐」을 개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도시농촌교류를 전개하고 있다.

● 띠지붕 농가가 남아있는 농촌경관을 활용한 도시주민과의 교류 : 니가타현 타카야나기정(동경에서 약 200km)

① 사업의 개요

정사무소, 농협, 상공회 등으로 구성된 고향개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띠지붕농가가 남은 농촌경관을 활용한 도시농촌교류를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숙박시설, 농산물직판시설 등을 정비한 복합교류시설 「じょんのび村」과 인접한 자연체험시설 「어린이자연왕국」 등을 연계하여 도시주민의 유입체제를 정비
- 수도권과의 교류를 전개
- 지역축제에 도시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가을 및 겨울축제 등 도시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개최를 실시함.



じょんのび村



어린이 자연왕국

② 성과

- 연간방문객수는 1994년 13만명에서 2000년 2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도시농촌교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들기가 진전되었음.
- 성과가 좋았던 요인
 - 「고향개발협의회」(정사무소, 농협, 상공회등으로 구성)에 의해 전체지역 사회차원의 추진체제 확립
 - 연간200회에 달하는 지구간담회를 통해 「농촌의 원래풍경을 활용하여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한다라는 공통인식을 가짐
 - 농촌휴가법에 기촌한 시정촌계획을 책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발신 및 농작업체험 지도자 등의 인재를 육성

● 하천원류를 지닌 풍부한 자연을 활용한 도시주민과의 교류 : 기후현 미야촌(동경으로부터 약 200km)

① 사업의 개요

겨울철 스키민박 영업을 한 농가민박을 여름철에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천원류의 풍부한 자연을 활용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농가민박과 촌사무소가 연계하여 나고야 등 중부권의 일반객의 유입, 1997년 학습원 중등부 수학여행 등 수도권의 수학여행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제 3 장 국내외 그린투어리즘 사례분석

- 宮村グリーン體驗宿(농가민박 집단), 촌사무소, 상공회 등이 협력하여 「전국 체험민박서미트」(2001년 11월)를 개최(전국의 농림어업체험민박 및 행정관계자 약 100명이 참가)
- 체험을 행하는 중핵교류시설인 「位山(쿠라이야마)교류촉진센터」의 정비



宮村グリーン體驗宿(たいけんじゅく)

② 성과

- 연간 방문객수는 1994년 24만명에서 2000년 3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도시농촌교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들기가 진전되었음.
- 성과가 좋았던 요인
 - 마을 내의 농가민박이 농림어업체험민박 등록제도에 가맹하고, 宮村グリーン體驗宿을 결성하여 도시주민을 유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 인재센터에 등록된 마을주민을 官川の 원류관찰, 임업체험 등의 농림어업체험 지도자 등으로 인재를 활용함.
 - 마을사무소가 수학여행을 접수하는 창구가 되는 등 농가민박에 대한 지원 체제를 정비함.
 - 마을사무소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도시민에게 효과적인 정보발신을 실시함.

● 체재형시민농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주민과의 교류 : 나가노현 사가촌

① 사업의 개요

북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1993년에 「坊主山クラインガルテン(클라인가르텐: 작은농원)」을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농촌교류를 전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유희화한 뽕나무밭을 활용하여 전국에 선구적인 체재형시민농원 53구획(1구획 : 300㎡)의 정비
- 체재형시민농원이용자들의 집회용 교류시설과 일반방문자용 체재형 시설을 동시에 정비
- 클라인가르텐을 운영하는 「坊主山클라인가르텐구락부」에 의해 북알프스경관을 배경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등을 개최함.



坊主山クラインガルテンの風景



綠ヶ丘クラインガルテンの風景

② 성과

- 체재형시민농원 정비와 주변시설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교류가 진전되며, 마을주민이 유치한 도시주민을 자극하여 스스로 지역의 자연, 경관, 농업에 대한 재인식, 재평가가 진전

○ 성과가 좋았던 요인

- 전국최초로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재형시민농원으로 주목을 받았음.
또한, 이를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 대한 정보발신에 노력
- 농작업을 지도하는 마을주민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마을에 도시주민을 유치하는 체제 확립
- 마을사무소, 농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 하에 「坊主山클라인가르텐구락부」에 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등의 실시

8. 국외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유럽과 미국,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환경보전, 방문객의 체험, 농가의 생활유지 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민박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며, 민박경영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면서 관광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농가민박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업을 이용한 관광이 주로 이루어지며,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체험중심의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투어리즘의 실질적인 개발주체가 지자체, 주민협의체, 민간주도형 제3섹터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각 농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운영, 교육, 홍보, 정보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성에 바탕을 둔 다양하고 개성있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내 다양한 시설을 네트워크하여 이용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충남의 그린투어리즘 현황

1.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현황

외국의 그린투어리즘은 프랑스의 경우 지트(농가에서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집), 영국에서는 B&B(방문객들에게 숙박과 전통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숙박시설), 일본에서는 민숙(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일본식 숙박시설)과 농가민박(Farm Inn)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농어촌민박은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에서 이해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촌의 가정에 숙박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그 지역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 속에서 여가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⁵⁰⁾

따라서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현재 충청남도 농어촌민박현황⁵¹⁾을 살펴보면 사업체수 363개소, 종사자수 695명, 연간소득 6,058백만원, 평균조업월수는 5.5개월, 사업체당 평균 소득은 16,688천원⁵²⁾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태안군과 보령시가 충청남도 전체사업체수의 80.7%, 중

50) 윤대순, “외래관광자를 위한 민박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7호, 한국관광경영학회, 2000, p.126.

51) 농어촌민박현황은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0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농어촌민박업에는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서 단기간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산장 및 방가로 운영, 휴일캠핑장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운영, 야영장운영 등이 포함되어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으로 분류되나, 편의상 농어촌민박업이라고 부른다.

52) 관광숙박시설(호텔, 여관, 휴양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체당 연간소득 114,618천원의 14.6%에 불과하다.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사자수의 78.0%, 연간소득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태안군과 보령시의 경우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에 비해 연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부여·공주 등에 유스호스텔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르면 금산·연기·서천·홍성군 등에는 농어촌민박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⁵³⁾

<표 4-1-1> 2000년 농어촌민박 현황

구 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연간소득(백만원)	평균조업월수
충청남도	363	695	6,058	5.5
천안시	3	3	29	8.3
공주시	38	79	1,235	11.0
보령시	111	217	1,833	6.8
서산시	2	4	11	12.0
논산시	1	2	60	10.0
부여군	1	33	981	12.0
청양군	3	6	23	5.0
태안군	182	325	1,647	3.6
당진군	22	26	239	3.4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창업연도별 농어촌민박업체수를 보면 91~2000년이 전체의 76.03%, 다음이 81~90년이 16.8%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체는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별 농어촌민박업체 현황을 보면, 2인이 전체의 6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이 28.9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94.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가족노동력이나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3) 이러한 이유는 농가민박이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농가민박을 하면서도 사업체조사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결과인 듯 하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표 4-1-2> 창업연도별 농어촌민박업체수

(단위 : 개소, %)

구 분	70년 이전		71-80년		81-90년		91-2000년		합계
충청남도	2	0.55	24	6.61	61	16.80	276	76.03	363
천안시	0	0.00	0	0.00	0	0.00	3	100.0	3
공주시	0	0.00	5	13.16	11	28.95	22	57.89	38
보령시	1	0.90	9	8.11	22	19.82	79	71.17	111
서산시	0	0.00	0	0.00	0	0.00	2	100.0	2
논산시	0	0.00	0	0.00	0	0.00	1	100.0	1
부여군	0	0.00	1	100.0	0	0.00	0	0.00	1
청양군	0	0.00	0	0.00	0	0.00	3	100.0	3
태안군	1	0.55	9	4.95	28	15.38	144	79.12	182
당진군	0	0.00	0	0.00	0	0.00	22	100.0	22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표 4-1-3> 종사자수별 농어촌민박업체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충청남도	105	(28.93)	239	(65.84)	7	(1.93)	7	(1.93)	5	(1.38)	363
천안시	3	(100.0)									3
공주시	15	(39.47)	19	(50.00)			2	(5.26)	2	(5.26)	38
보령시	27	(24.32)	73	(65.77)	4	(3.60)	5	(4.50)	2	(1.80)	111
서산시	-		2	(100.0)							2
논산시	-		1	(100.0)							1
부여군	-		-						1	(100.0)	1
청양군	1	(33.33)	1	(33.33)	1	(33.33)					3
태안군	41	(22.53)	139	(76.37)	2	(1.10)					182
당진군	18	(81.82)	4	(18.18)							22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한편,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업 사업체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12개소였으나, 2000년 363개소로 증가하였다. 시군별로는 보령시와 공주시, 당진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청양군과 태안군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표 4-1-4> 농어촌민박업체수의 변화추이

(단위: 개소, %)

구 분	2000년	1995년	변화량	연평균변화율
충청남도	363	312	51	0.0307
천안시	3	1	2	0.2457
공주시	38	17	21	0.1745
보령시	111	82	29	0.0624
아산시	0	1	-1	-1.0000
서산시	2	0	2	-
논산시	1	0	1	-
부여군	1	0	1	-
청양군	3	14	-11	-0.2652
예산군	0	5	-5	-1.0000
태안군	182	192	-10	-0.0106
당진군	22	0	22	-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표 4-1-5> 농어촌민박업 종사자 변화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0년	1995년	변화량	연평균변화율
충청남도	695	469	226	0.0818
천안시	3	1	2	0.2457
공주시	79	30	49	0.2137
보령시	217	111	106	0.1435
아산시	0	1	-1	-1.0000
서산시	4	0	4	-
논산시	2	0	2	-
부여군	33	0	33	-
청양군	6	14	-8	-0.1559
예산군	0	6	-6	-1.0000
태안군	325	306	19	0.0121
당진군	26	0	26	-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종사자수는 1995년 469명에서 2000년 695명으로 총 226명이 증가하였으며, 보령시와 공주시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간매출액은 1995년 2,841백만원에서 2000년 6,058백만원으로 3,217백만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16.3% 증가하였다. 보령시와 공주시, 부여군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4-1-6> 농어촌민박업 매출액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0년	1995년	변화량	연평균변화율
충청남도	6,058	2,841	3,217	0.1635
천안시	29	6	23	0.3704
공주시	1,235	256	979	0.3699
보령시	1,833	782	1,051	0.1857
아산시	0	6	-6	-1.0000
서산시	11	0	11	-
논산시	60	0	60	-
부여군	981	0	981	-
청양군	23	14	9	0.1044
예산군	0	13	-13	-1.0000
태안군	1,647	1,764	-117	-0.0136
당진군	239	0	239	-

자료 : 통계청, 2000년 총사업체통계조사, 2002.

따라서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업은 첫째,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태안군·보령시 등 해안에 접한 시·군에 전체의 86.1%가 분포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은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되었다.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된 업체가 전체의 76.0%에 달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은 1~2인의 소규모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94.8%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노동력이나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평균조업월수가 5.5월에 불과하며, 이는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의 경우가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사업체당 평균소득규모가 영세하다. 농어촌민박업의 연평균소득은 16,688천원에 불과하여 관광숙박시설(호텔, 여관, 휴양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14.6%에 불과하다.

2.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2002년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시범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우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로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와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로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로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로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⁵⁴⁾로 청양군 정산면 도림리 등,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다.

<표 4-1-7>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현황

구 분	사 업 명	마 을 명
농 립 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보령시 주교면 신대3리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거북이마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환 경 부	생태우수마을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해양수산부	어촌체험관광마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산 립 청	산촌종합개발사업	청양군 정산면 도림리 등
농 협	팜스테이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합전마을 등

54) 충청남도 내에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마을이 19개 조성완료 되었거나 추진계획에 있다.

제2절 그린투어리즘 사례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은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 등의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농협의 팜스테이 등을 실시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4-2-1] 조사대상마을 위치도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조사대상마을은 아름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전통테마마을은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팜스테이는 금산군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 등 4개 마을이다.

또한, 이들 4개 마을 이외에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서천군 마서면 합전리,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등도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2) 대상마을의 일반현황

(1) 수통리

수통리는 금산군 부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상류지역인 적벽강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산읍의 남동쪽에 위치한 수통리는 맑은 금강물과 수려한 경관,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그리투어리즘(팜스테이)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마을로 지정되었다.

수통리 팜스테이는 대벌농장(대표 길관석)을 비롯하여 5개 농가가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제공을 비롯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부리면의 특산물인 배와 배즙, 토종된장 및 간장, 인삼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 오학리

오학리는 서산시 해미읍성 북쪽 0.8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80호중 65가구가 농가이며 195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2년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시범마을로 지정되었으며, 12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89ha(논 31, 밭 58)이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며 쌀위주의 곡물류와 채소 등이 주요생산 농산물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T.G에서 5분 거리이며 수도권접근이 매우 용이한 지역이다. 2001년 귀농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장범용(전 EBS PD)씨가 마을지도자로 마을청년회와 도우미(김광일 초등학교 교사) 등이 전문화된 천문관측 행사와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 별마을(Star+village)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은 2억원을 이용하여 민간천문대를 건립하고, 농가민박시설을 설치하여 천문관련 체험학습 및 천수만의 철새도래지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탐조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의 해미향교를 이용하여 마을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위한 예절교육 등을 구상하고 있다. 2002년에는 서산시 소유 밤나무 단지를 임대하여 주변 및 도시민들을 위한 밤줍기 체험이벤트를 개최하였다.



(3) 내현리

내현리는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이며 마을의 모양이 거북이의 목처럼 생겨 구목(구을목)이라고 하고 거북모양의 바위가 머리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내현이라고도 불린다. 마을에는 노거수 느티나무와 담양전씨 사당인 구산사, 전통가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특산물인 연엽주와 보리고추장을 맛볼 수 있으며, 홍성농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업기술센터와 마을부녀회 등이 주축이 되어 농가민박을 계획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민들이 방문할 경우 마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건립 및 구산사 옆에 민물고기 생태체험시설의 건립 등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4) 홍도마을

홍도마을은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진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반위에 복숭아를 올려놓은 듯한 모형의 명당터가 있다하여 홍도마을이라 하였다. 충청남도로부터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금산군으로부터 인삼재배시범마을, 금산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생활환경시범촌, 농협으로부터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내에는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마을회관, 산책로, 수영장, 마을정자 등이 위치하고 있고, 도원농원(양현철, 강순애 부부)을 비롯한 10가구가 팜스테이에 참여하면서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친환경농업 및 도농직거래(인삼, 쌀, 배, 콩, 전통된장, 간장, 고추장)를 실시하고 있다.



3) 조사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단위 및 농가단위 체크리스트⁵⁵⁾를 작성하여 마을단위는 체재시설, 체험, 교육, 생산 및 판매, 홍보, 네트워크,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고, 농가의 경우 그린투어리즘 도입, 운영, 외부지원 등의 항목과 세부사항으로 구성하였다.

55) 부록 참고

면접은 마을단위 체크리스트는 리장이나 그린투어리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지도자, 농가단위인터뷰는 그린투어리즘이나 팜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결과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마을단위⁵⁶⁾ 및 농가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을단위

첫째, 도시민들이 방문했을 경우 숙박할 수 있는 농가민박 및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오학리를 제외한 3개 마을은 기존농가를 이용한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방문객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민박의 경우 대부분 기존농가를 이용한 민박이었으며, 빈집을 이용한 농가민박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수통리의 경우 농촌빈집을 농가민박시설로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기존농가이용 농가민박	○	×	○	○
빈집이용 농가민박	×	×	×	×
음식물 제공	○	×	○	○

56)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구단위로 지정되지만 편의상 마을단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홍도마을 농가민박



수통리 농가민박

둘째, 도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했을 경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오학리를 제외한 모든 마을이 농작업 체험이 가능하였으며, 대표적인 농작업체험은 고추따기, 벼수확, 인삼파종 및 캐기, 등이었다. 전통문화체험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오학리의 경우 인근의 향교와 연계하여 한학, 예절교실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밤줍기, 메뚜기 잡기, 고기잡기, 고사리채취, 버섯채취 등 마을특성을 고려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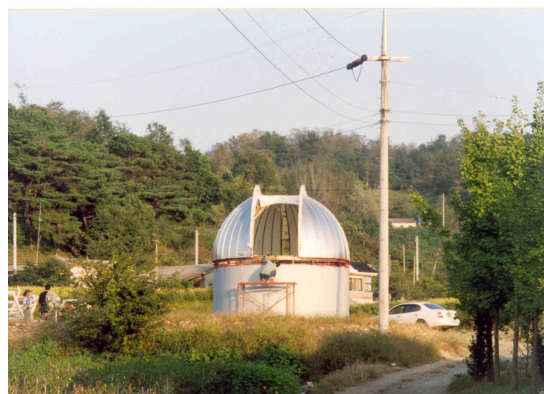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벤트를 개최하고 있었으며 농작업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안내하는 안내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농작업 체험가능	○	×	○	○
전통문화체험 가능	×	×	×	×
이벤트 개최	×	○	○	○
체험프로그램안내자 보유	○	○	○	○



밤줍기 체험(오학리)



마을천문대(오학리)

<오학리 별마을 밤줍기 체험행사 개최>

“별마을에 알밤이 벌었데요”

늦 매미가 울고, 고추잠자리가 날아 다니는 눈부시도록 푸른 가을하늘!
오학리 별마을 청년들이 정성껏 돌보아 온 밤이 토실토실 가을빛에 여물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을의 정취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밤나무 단지 안내

- 위치 :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산 10-1번지 3필지
- 면적 : 약 6만평, 밤나무 약 5,600여 그루(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2. 행사내용

- 일시 : 2002.9.9-10.20
- 행사참가비
 - 어른 : 9,000(4kg), 어린이 : 4,000(2kg)
 - 입장시 밤을 담을 수 있는 망을 제공합니다.

3. 준비물 및 주의사항

- 긴소매 옷, 장화(등산화, 운동화), 모자, 코팅된 장갑
- 만약 벌집을 발견시는 당황해서 건드리지 마시고 운영팀에 연락하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이꽃 버섯이나 자연산 영지버섯을 제외한 모든 버섯은 절대로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식수와 구급약이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책 장범

4. 찾아오시는 길

- 해미읍성에서 운산방향으로 서산고등학교를 지나 7~800여 미터 지나면 다리가 나타납니다.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우회전 하신 후 설치된 안내 이정표를 따라 계속 직진하시면 밤나무단지내 주차장까지 오실수 있습니다.

별마을 청년회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미꾸라지·메뚜기·우렁이잡기 체험 인삼캐기 체험홍도마을(도원농원)

자료: <http://www.farmtour.co.kr/gallery/board.php?table=gallery>

셋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은 오학리와 내현리였으며, 수통리와 홍도마을은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마을계획은 홍도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수립하고 있었으며, 그린투어리즘을 연구하기 위한 마을연구회도 내현리와 홍도마을에 구성되어 있어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지도자 및 주민교육실시	×	○	○	×
마을계획 수립	○	○	○	×
마을연구회	×	×	○	○

넷째,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이 농가민박과 농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라는 점에서 농특산물 생산 및 판매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마을이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접판매하고 있었다. 거북이 마을과 홍도마을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마을별로 외부에 자랑할 만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대도시 백화점 등과 농산물 계약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재배 등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계획하고 있다는 마을이 있었으며, 수통리를 제외하고는 마을 내에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시설이 없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친환경 농축임산물 생산	×	×	○	○
대도시와 농산물 계약재배	×	×	×	×
자랑할만한 농특산물	○	×	○	○
농특산물 판매시설 및 판매여부	○	○	○	○
마을에 음식점 및 레스토랑	○	×	×	×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홍보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홍도마을과 수통리에 인터넷홈페이지⁵⁷⁾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 팸플릿도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수통리와 홍도마을에는 농협에서 팜스테이를 실시하는 마을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지만, 오학리와 거북이 마을에는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들이 마을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각 마을들은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인터넷 홈페이지	○	×	×	○
홍보·안내책자, 팸플릿	×	×	×	×
마을소개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	○	×	×	○
도시민들 유치 노력	○	○	×	○

57) 마을전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도원농장, 대벌농장 등 농장단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수통리 대벌농장 홈페이지(http://www.greenweek.co.kr/)



홍도마을 도원농원홈페이지(http://www.farmtour.co.kr/)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팜스테이마을 소개 안내판(홍도마을)



팜스테이농가 소개 안내판(수통리)

여섯째, 도시, 지방자치단체, 인근마을과의 네트워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마을이 도시의 아파트단지·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다른 마을과도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청·농업기술센터 등 지방행정기관과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도시와 직거래 및 도농교류	×	×	×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	○	○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다른마을과 정보교환	×	×	×	×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에 대한 외부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마을에 대해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자문이나, 연구 등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마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수통리	오학리	거북이마을	홍도마을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의 참여여부	○	○	○	○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	○	○	○

2) 농가단위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단위의 비즈니스이고 농가민박이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우선 농가민박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농작물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유치함으로써 이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농가민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농가민박을 창업하기 위한 법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금강주변의 경우 음식점허가의 어려움과 함께 민박내에 식당을 겸할 경우 마을 내 다른 식당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민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민박마을로 지정되지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의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농가민박을 창업하기 위한 정보는 농협의 팜스테이 관련교육을 받거나 최근 언론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얻고 있으며, 기존의 특색 있는 체험농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가민박의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환경농업 등을 통한 도농교류형태로 시작하였다가, 최근 농가 및 주변관광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형태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은 전업형태로 추진하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민박은 농가부업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로서는 농가민박이 여름철에 한정되어 있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농산물판매와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전업형태의 창업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현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숙박시설 및 농가체험시설을 확충한다면 전업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은 가능하면 단독농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농가가 보유한 자원이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만, 등산로, 화단조성, 휴양시설 등 마을내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가민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한 도시민들에 대한 환대 등을 통해 재방문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농가민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경영교육은 선진지 현장체험을 통한 인식전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강의,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결성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민박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농가 및 회원농가 단위 홈페이지, 농협, 행정기관, 방문자들에 대한 홍보 등의 수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 등 농가민박의 확장을 위한 재원은 현실적으로 농가단위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은 ①농가민박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②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③일반농가와 마찬가지로 시장 등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외부방문객 유치 및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농가단위에서는 도시민들의 요구⁵⁸⁾에 부응하여 농가의 숙박시설을 확충 및 고급화, 다양한 농촌특유의 음식 개발 및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계절적 편중과 예약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농가민박에 대한 실천경험의 교환을 위해 농가민박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모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경우 우선,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는 농가민박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 등이었다.

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문제점

충청남도 농가민박현황,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및 농가민박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연구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마을지도자나 민박경영자 등의 경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가민박, 농촌전통자원 등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농촌활성화 운동으로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교육 등이지만, 아직까지 농가민박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곳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중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농촌체험 및 교육보다는 숙박기

58) 농촌의 정취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경우는 주인세대와 더불어 숙박하기를 원하지만, 단체방문(3~40명)인 경우 대부분 음식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숙박은 별도로 하는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등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4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문제점

능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민박의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농작업체험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안내자를 마을마다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마을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농촌지역에는 향교, 서원, 전통놀이문화, 문화재 등 유무형 전통문화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대상마을 중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교육시설은 홍동면 문당리의 환경농업교육관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작목반과 유사한 형태로 농가민박을 실시하는 농가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민박이 반드시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와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홍도마을, 수통리, 합전리 등의 일부 농가에서는 환경농특산물, 지역농특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등을 인터넷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으나 농산물 직거래는 일부 선도농가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인터넷홈페이지구축, 홍보책자, 마을안내판 등의 홍보방안이 시급하다. 현재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홍도마을과 수통리 등에 농협홈스테이 마을지정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외부방문객이 지정여부를 알 수 있는 홍보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대부분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전문가들로부터는 자문 등을 받고 있었으나,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과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홉째, 농가민박경영자들은 여름철에 한정된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설 투자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여름 휴가철에 집중됨으로써 시설가동률이 낮은 겨울 등의 시설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농가민박에 대한 투자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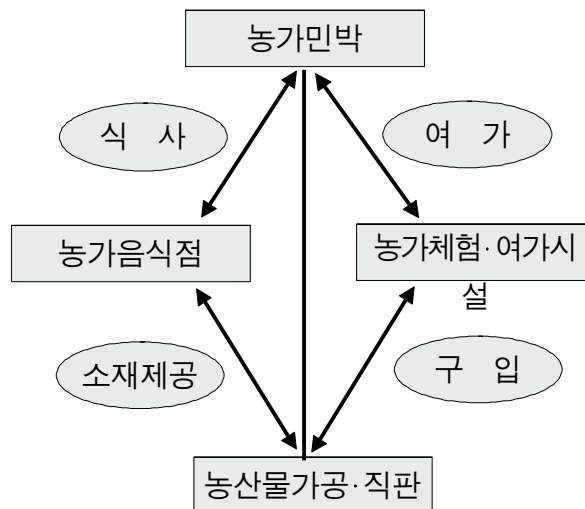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방이나 빈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함으로써 일반가정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5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제1절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기본전제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농림업, 농지 및 임지의 보전과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며, 주민의 문화나 생활기반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⁵⁹⁾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농림업에 매력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업·농촌’을 재구축하기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되, 그 목표는 ‘농촌다움의 창조’하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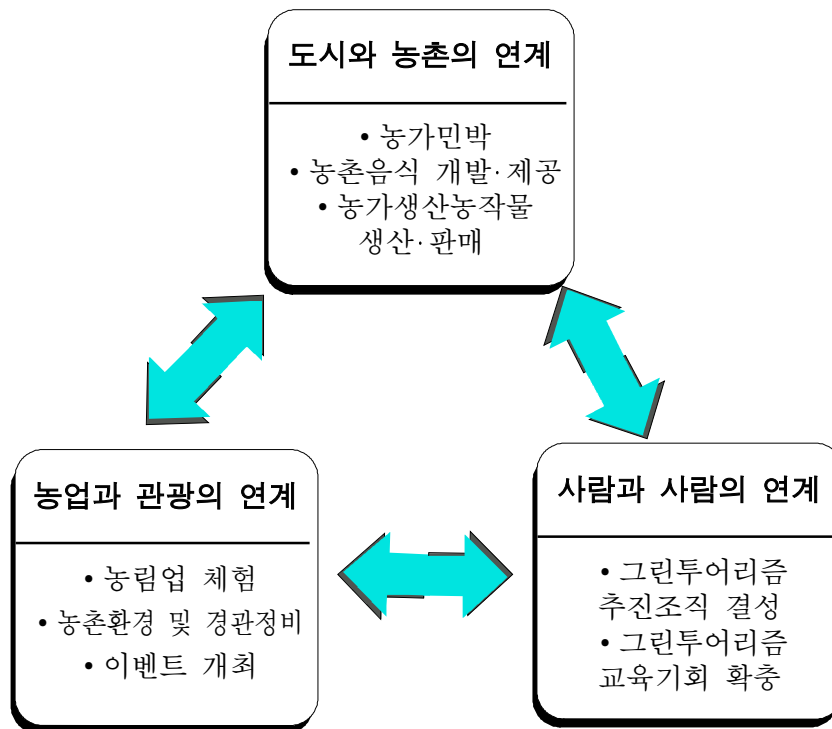
[그림 5-1-1]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59) 산림청, 앞의 책, p.13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주체가 된 민박, 농가 음식점, 농가에 의한 체험·여가시설의 운영, 농축산물이 가공·직판이라는 4개 부문이 하나의 지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도시와 농촌의 연계, 둘째, 농업과 관광의 연계, 셋째, 사람과 사람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1-2] 그린투어리즘 추진방안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해서는 ①농촌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 내에 외부방문객들이 체재할 수 있는 숙박시설, ②농촌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제공, ③농촌의 특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과 관광의 연계를 위해서는 ①외부방문객의 농작업 체험, ②농촌의 환경 및 경관정비, ③외부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사람과 사람의 연계를 위해서는 ①그린투어리즘을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의 결성, ②농촌주민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방안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1) 농가민박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은 농가 등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대부분의 농가민박은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계절적인 한계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들은 어떤 농가에서 민박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농가민박의 창업과 성공적 운영에 대한 기술습득 등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 민박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어려운 실정에서 개별창업하는 농가민박에까지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요구가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 숙박을 전업으로 하는 고급시설을 갖춘 민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 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민박을 이용하는 도시민중에서는 농촌체험보다는 대중관광의 의도를 지닌 부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정취를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느끼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인세대와는 격리된 독립숙박형태, 후자는 민박경영주와 함께 하는 숙박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농가단위에서 이 두 부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동일한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마을 공동으로 독립된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단독세대, 노령부부세대 등 사용하지 않는 빈방을 이용하거나, 시·군마다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농가민박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되 숙박기능만 제공하고 음식은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방문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농가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5-2-1>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3~2005년)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민박 수용능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가구: 시설 및 서비스 수준 - 일반가구: 방문객 수용 가능한 가구 • 주민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 및 팜스테이 희망가구 - 요구조건 	시·군 연구기관
민박 공급량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에 의한 숙박수요 분담율 - 농어가·주택 특성, 마을환경, 접근성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시설 개선(농어가 주택개량) • 마을환경 개선, 주차장·접근로 정비 ※농어촌 환경개선 지원정책 활용 	충남도 시·군 연구기관
조 직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조직 결성 • 지원조직 결성 	주민, 지역단체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방법 • 체험프로그램, 향토요리 등 개발 	관광전문가 시·군
홍보·예약시스템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 및 기존 네트워크에 연동 • 실시간 홍보·예약관리 	충남도, 시·군, 농·수협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표 5-2-2> 농가민박활성화 방안(2005년 이후)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주체
민박서비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실민박, 대가민박, 어린이민박, 장애자를 위한 민박, 농가캠프장, 고급민박, 낚시민박 등(음식물 제공여부 고려) • 전문관광시설과 패키지 상품화 	민박단체 충남도 시·군
민박서비스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 	민박단체
민박경영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 •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 및 연수 실시 	민박단체, 농·수협 전문가 및 지원 단체
민박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 정보 및 예약 서비스 확대 • 충남 및 전국 민박 네트워크 형성 • 일본 및 유럽 민박연맹과 제휴 	민박단체 농·수협 전문가 및 지원 단체
민박경영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중앙 및 지방정부

1단계(2003~2005년)는 농가민박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민박수용능력을 조사하고, 민박의 공급량을 판단한 다음,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민박 및 지원조직을 결성하고, 민박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방법, 체험프로그램 및 향토요리 등을 개발하며, 실시간으로 홍보·예약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2단계(2005년 이후)는 유럽과 같이 민박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충청남도 농가민박연맹(가칭)'의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해 민박서비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연수교육 등 민박경영자 육성, 민박정보 및 예약서비스확대 등 민박네트워크 확대,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등 민박경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촌음식의 개발 및 제공

농가민박에서 농촌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농작업 체험과 함께 그린투어리

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음식물은 농가민박경영자가 직접 제공하는 형태와 주변의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농가민박경영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도시의 음식점에서와 같은 정갈함은 없지만, 주변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변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지역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민박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농가민박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 경우 허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을 내에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이들 업소와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방문객 스스로 음식을 해결하는 경우, 부정기적인 방문객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가민박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음성적인 양상을 띠고 되고, 음식물 개발에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민박에서 일정인원의 범위 내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⁶⁰⁾을 제시하여 법제화하여 농가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유형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민박이라면 유럽에서처럼 민박소개책자나, 안내판 등에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표식을 하는 것도 도시민들을 위한 배려하고 판단된다.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모든 가구가 음식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숙박을 여러 곳에서 하되, 음식물은 한곳의 농가민박에서 제공하는 형태(예, 홍도마을)도 고려해볼 만하다.

60) 음식물제공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사고 보험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그러나 농가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유럽의 경우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농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음식점자들로 부터 고소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농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인해 불공평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라는 음식점자의 주장이다.⁶¹⁾

우리 나라의 경우 초기단계에 불과한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농가생산 농작물 생산 및 판매

농산물판로의 어려움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도시민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민박을 창업하는 형태(예, 수통리)의 경우 농가생산 농작물의 직거래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마을의 경우 농가민박의 경영주가 직접 재배한 농가생산물을 방문객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였으며, 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규모가 크고 이름이 알려진 아리랜드의 경우 친환경 쌀(오리농법), 친환경 채소(고추, 배추 등), 가공제품(죽염, 된장), 토종흑돼지, 홍화씨 등 다양한 농산물을, 규모가 작은 농가민박의 경우 배·토종된장·인삼(수통리 대별농장), 오리농법쌀·토종된장 및 간장·배·인삼(홍도마을 도안농장) 등 소품종의 농산물을 직접 및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환경농법을 이용한 농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가민박 경영주는 환경농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한 농촌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곧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

61) 조계현 외 공역, 녹색관광, 누리에, 2000, pp.181~182. 농가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사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음식재료도 농원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노동력도 외부로부터 요리사나 급사를 고용하지 않고 농원의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등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며, 도시민들의 재방문률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가민박경영주는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대도시 백화점 및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1) 외부방문객의 농림업 체험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민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업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농림업을 체험함으로써 도시민들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농촌성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자연의 소중함과 더불어 농작물의 생육 및 생산 등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마을에서도 모내기, 과일따기, 고추따기, 각종 채소수확 등의 농림업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험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합전리 아리랜드의 경우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도시민들을 위해 감자·고구마·고추·참외·수박·가지·알타리무·강낭콩·배추 파종 및 가꾸기, 수확 등의 농림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 공동농장을 마련하여 도시민들을 위해 분양하는 주말농장형, 또는 그린투어리즘 농가에서 도시민들이 농작업을 체험하는 농장체험형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농작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농장형의 경우는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 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도시민들이 직접 파종에서부터 가꾸기, 수확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시민들의 상당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말농장을 분양 받은 도시민들은 자기의 책임 하에 파종하고 수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반면, 농장체험형의 경우 한 두 번만의 방문을 통해서도 부담 없이 농작업을 체험할 있다는 점과 농촌에 체재하면서 농촌 및 농작업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작업체험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농가민박과 더불어 도시민들이 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이며, 체험활동을 통해 수확하는 농작물의 경우 직접 구매케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는 활동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농작업 체험이 환경농업과 결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그린투어리즘 농가에서는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활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체 험 내 용	비 고
봄	모심기, 달래·냉이·딸기·두릅채취	წყ시
여 름	참외·수박·오이·토마토따기, 버섯채취, 상추채취	წყ시
가 을	벼베기, 감자·고구마·땅콩·마늘캐기, 도토리·밤줍기, 깻잎·옥수수따기, 사과·배·복숭아·감·대추·포도·호두따기, 고추따기, 인삼캐기, 콩수확, 구기자따기, 호박따기	메뚜기잡기 다슬기 잡기
겨 울	도토리묵 만들기	წყ시

2) 농촌환경 및 경관정비

농촌은 농업행위의 활동을 위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내지 투쟁을 통해 형성된 지역으로서, 그 속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작법, 취락, 생활양식, 언어 등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고 표출된 것이 농촌환경 및 경관이다. 농촌환경 및 경관은 야생지 만큼 천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도시보다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환경보다는 자연적인 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다.⁶²⁾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따라서 농촌의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녹지, 소음이 없는 환경 등과 같은 환경자원, 비옥한 토양, 기후, 지형(특이지형, 등산로), 동물(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동물 등),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식생(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보호수림 등), 습지 혹은 생물서식지 등과 같은 자연자원,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등), 하천경관(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수림 등), 산림경관(산세, 배후구릉지 등), 주거지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등) 등의 경관자원은 도시민들을 보다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농가단위의 농가민박 및 체험활동과 긴밀한 연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

<표 5-2-3> 수통리의 환경 및 경관자원

구 분	항 목	내 용
환경자원	대기질	밝게 빛나는 많은 별을 볼 수 있음
	수 질	우리나라 특산어종인 감돌고기와 통사리를 비롯한 쏘가리, 갈겨니, 쉬리, 꺾지 등이 서식하는 1-2등급
	소 음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조용한 편임
자연자원	토 양	토양의 비옥도는 타지역과 비슷함
	미기후	마을의 계절변화가 커서 이를 쉽게 느낄 수 있고, 일교차가 큰 기후, 안개가 많이 끼는 편이며, 눈은 타지역과 비슷함
	지 형	마을 동쪽 금강상류의 적벽강이 위치하여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이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곳이 있음.
	동 물	타지역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음
	수자원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은 수량한 풍부하고 수질이 맑음
	식 생	마을 뒷산의 양각산은 산세가 수려하고 식생이 다양하며, 숲가꾸기를 실시
	습 지	대늪에는 수심이 깊고 주위 풍광이 수려함
농업자원	과수원	배를 중심으로 한 배 과수원이 광범위하게 분포
	밭	밭은 주로 인삼과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음
	논	논은 벼농사를 주로하고 있음

62) 윤진옥 외,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농촌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1995, p.94.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조사대상마을 중 수통리의 환경자원·자연자원·농업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5-2-3>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농업경관은 매우 중요한 상품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즉,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은 마을공동의 자산으로서 개별농가가 제공할 수 없는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마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3) 이벤트 개최

이벤트란 주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에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 또는 의식으로서, 긍정적 참여를 위해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⁶⁴⁾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에서의 이벤트란, 농촌과 관련되어야 하며 농촌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의 문화체험은 농작업체험을 비롯한 농촌의 문화, 생활, 전통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벤트란 반드시 농작업과 관련한 것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밤줍기, 버섯채취 등 뿐만 아니라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 잡기, 가마니 짜기, 물고기 잡기, 된장만들기, 음식만들기, 지역의 전통놀이 등을 소재로 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실제 오학리의 경우 밤나무단지를 임대하여 밤줍기 이벤트를 개최하여 마을 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63) 강경하·조순재, 농촌어메니티자원 현황과 활용, 농촌어메니티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 심포지엄,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한국농촌계획학회, 2002, p.149.

64) 이경모, 이벤트학의 개념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0집, pp.135~141.

이와 같이 이벤트란 마을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고려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을 내에 이벤트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마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의 작은 콘서트”라는 유후인 음악제와 “영화관이 하나 없는 마을, 그러나 여기에 영화는 있다”라는 슬로전 아래 유후인 영화제를 개최하여 유후인의 지명도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높이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과 같은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학리는 마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을 테마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천문대를 건설 중에 있어 그 성공여부를 떠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주민들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이벤트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 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1)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

우리나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그나마 대부분 이론적이고, 국가단위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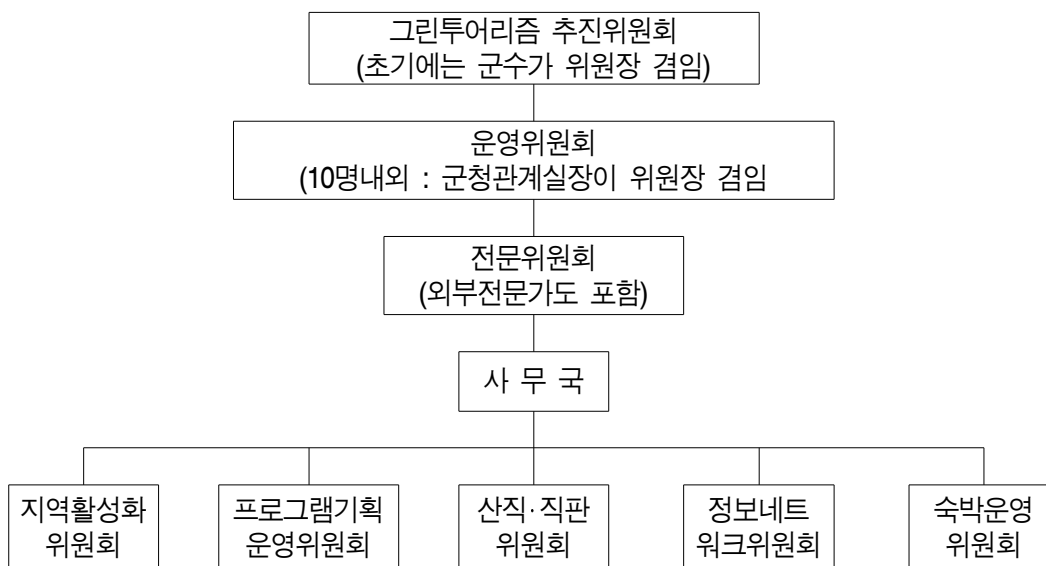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의 지도자나 마을 주민들도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린투어리즘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의 역할은 마을주민들에게 마을활성화의 전략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유용성을 이해시키는 일, 그러한 이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해를 바탕으로 하여 마을주민들의 합의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 개별농가가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그린투어리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점 해소를 지원하는 일,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와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등이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순창군의 예를 들면,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를 군 단위 조직과 마을단위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⁶⁵⁾ 이 위원회에는 순창군의 관·민, 농민과 상인, 관광업자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이 망라되어 문자 그대로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군수든, 민간지도자든 상관없으나, 사무국은 군이 맡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프로모터요 동시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고,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인선은 신중을 기하되 공무원 내에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영입도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5-2-1]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 조직도

65) 순창군,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1999, pp.91~93.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군 단위조직과 지역(마을)단위 조직으로 이원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이 순창군과 같이 거군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를 중심으로 기존작목반을 활용하거나 학습회나 연구모임 형태로 구성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조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나 마을 내 자치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이 농산촌지역에 정착된 이유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못지 않게 주민조직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과소화·고령화·부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조직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농가민박의 경우는 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을 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되, 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조직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그린투어리즘은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마을 단위 지도자 및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이념과 그 추진 필요성, 구체적인 추진방법,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 역할과 서비스 정신 등에 대해 학습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그린투어리즘은 농가와 이를 포함한 농촌환경과 인심을 도시민에게 판매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즈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에는 그린투어리즘의 편익,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린투어리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방법,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환경질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책자(문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는 방법, 그린투어리즘과 마을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경영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사항과 고객 확보 등의 마케팅, 접객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및 세금 등을 교육하거나 그린투어리즘의 실천경험을 상호교환하는 것이다.⁶⁶⁾

일본의 경우 “큐슈투어리즘 대학”을 개설하여 그린투어리즘 교육을 통한 인재를 1997년부터 양성하고 있다. 강의는 월 1회 2박3일의 집중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농가부부로부터 공무원, 호텔 요리장 등 다채롭고 연령도 20~30대 까지 다양하다. 강의 내용은 그린투어리즘을 지역총합산업으로 파악하여 그 이론과 실천을 수업과 토론·현장실습의 형식으로 편성·진행하였다. 이 대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여행문화 창조에 두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인재가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 이론과 경영 노하우를 익히는 교육은 어떠한 시설정보보다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큐슈투어리즘 대학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 산림청, 앞의책, p.149.

67) 박광순,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 구주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1호, 전남대학교, 1998, pp.183~184.

일본형 그린투어리즘 역할, 투어리즘 개론, 지역만들기와 투어리즘, 와인즐기기, 지역교류민박, 음식, 마을경관보존 투어리즘, 관광과 투어리즘,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을 생각한다, 구주산지의 민속학, 여행과 만남, 투어리즘과 매력, 투어리즘의 철학과 본질, 농가민숙업의 법제도 현황, 농가민숙만들기, 농가민숙·레스토랑 견학, 농가민숙 체험, 접객을 배운다, 마케팅과 농산가공, 농산가공실습(치즈, 소세지), 사진보는 법, 일본술 이야기, 농산물·가공품 판매소에 관하여, 지역만들기와 교류, 복지와 투어리즘, 화산과 삶, 원적외선에 관하여, 지역산물을 이용한 요리실천, 생활리조트의 창조, 사례연구 에코투어리즘, 건축과 투어리즘, 에코투어리즘의 실천(토끼몰이), 겨울별자리, 환경교육의 실천, 투어리즘과 수공예, 투어리즘의 가능성, 가구만들기 끝손질 등

독일 바이에른(byern)주에서 민박경영 희망자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개설한 「농가의 환대」강좌내용을 살펴보면 <표 5-2-4>와 같다. 이러한 과정은 독일에서도 최근에야 설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바이에른주 정부가 지역의 농가민박을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4> 독일의 민박경영 희망자를 위한 훈련과정(1992년)

구 분	과 목
1. 필수과목	일반과목, 독일어, 수학, 자료가공
2. 가정·교양	가정관리, 상품·소비자에 관한 지식, 교양과 건강, 환경보호, 식사제공, 가옥·섬유제품 관리와 가공
3. 농촌의 접객	접객의 경영경제와 마케팅, 부기 및 세금지식, 대화진행 및 음악 교육, 채소밭 및 택지에 딸린 정원관리, 직업실습
4. 직업·노동교육 (선택과목)	직업·노동교육학, 직업생산과 마케팅, 농업경영개론, 판매·조언훈련

자료 : 井上和衛, 日本形グリーン・ツーリズム, 東京: 都市文化社, 1996, p.146.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군 국제협력실의 ‘한국그린투어리즘 연구실’을 가칭 “21세기 순창학당”으로 개칭하여 주민,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연구모임을 결성·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의 매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주 주말을 이용하되, 하루 4시간씩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이해, 그린투어리즘의 의의와 사회경제적 효과, 추진절차와 전략·방식, 손님맞이 자세와 태도 함양,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보통신 교육 등을 계획중이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군수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여 인증하고, 자격과 자질을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실기를 순창군에서 시작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간 연대를 모색,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칭 “한국그린투어리즘 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하되, 농번기를 피해 연7회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장소는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군내 ‘관광농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지침, 영농체험활동 이벤트개발, 리더십함양과 인터넷 활용방안 등을 기본으로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가이드와 인스트럭터(instructor)를 양성하고, 교육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 선진지역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촌성과 농촌주민의 환대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3절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향후과제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인 농가민박·농가음식점업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제정하고 정비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법은 농어촌정비법이 있으며, 이 법 제6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⁶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객실수는 농어가당 5실 이내로,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여인숙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

68)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며, 소방법·식품위생법 등의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농어촌 민박은 마을단위로 조성되고 있으며 농어가 마을에서 5호 이상의 가정이 민박사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박사업자는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가가 대상이 되므로 전문적인 숙박업자 및 상인은 제외하고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마을당 3억원 이내, 농가호당 1,500만원 이내⁶⁹⁾로 하고 있다. 농촌민박은 농림부, 어촌민박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민박에 대한 별률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무허가 상태의 민박업체가 대부분이며, 민박의 등급과 시설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물론, 객관적인 숙박요금의 산정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농가민박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농가민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박업 대상자에 대한 규칙 제정시 현재 1년 이상 거주농민에 한정된 것을 현지 거주농민 외에도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박업 연합체 등이 고품격 농가민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지정 및 서비스수준 등 심사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규정하여, 민박농가의 발전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농가민박뿐 아니라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규에는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 공원, 녹지 및 녹지대, 주차장의 설치, 방범등의 설치, 소방용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급수시설, 지하수의 채취, 도로, 우수 및 생활하수, 오수처리시설,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재 보전, 일조의 확보, 공해방지, 건축물의 기준,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994년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69)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박마을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지원대상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시설 및 소요자재비이다.

제 5 장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및 향후과제

법(그린투어리즘법)⁷⁰⁾을 제정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 모델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를 설치하고, “농산어촌에서 여유로운 휴가를”추진사업을 창설하였으며, 1998년에는 그린투어리즘 모델 정비구상·시정촌계획을 책정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의사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청남도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나 “○○시·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구성, 농촌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농가(민박농가)나 마을에 대한 재정지원,⁷¹⁾ 그린투어리즘 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결성, 빈집의 활용, 농가민박이나 레스토랑의 등급구분 및 품질인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그린투어리즘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이 21세기를 향해 그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방문할 것이며, 얼마간 체재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70)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능정비와 농림어업 체험 민숙업의 건전한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정비가 아니라 그 기능의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현이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시정촌이 정비지구에서 행할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가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을 개업한다든지 시설을 개조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융자제도로는 농업근대화자금, 중산간지역 활성화 자금, 진흥산촌·과소지역 경영개선자금 등이 있다. 이는 민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농가에 장기의 저리조건으로 대출하고, 담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신용을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71) 와카야마현 모토미야정(和歌山縣本宮町)에서는 1993년도에 지역의 세대가 거택의 일부를 민박 등으로 개조할 경우 50만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제도화하고 있다.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50만엔으로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나 방재커튼의 설치 등 부분적 내장이 가능하다.

투어리즘 유형⁷²⁾은 무엇인가? 방문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그들에게 무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물음은 그린투어리즘이 단순히 그 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일본이나 유럽의 그린투어리즘에서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단순히 농가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하고, 숙박시설이나 농가음식점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자리매김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린투어리즘이 농가민박을 중심으로 한 개별농가단위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고립된 상태에서의 발전을 바람직하지 않다. 마을을 단위로 하여 지역 전체에서의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소위 지역마케팅⁷³⁾기법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이 농가민박에서는 운영 노하우나 마케팅기법, 회계 등의 면에서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농가경영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린투어리즘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2) 그린투어리즘에는 세 가지 즉, 농촌관광형, 농촌교육형, 농촌휴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관광형은 종래의 대규모 민박지역이나 리조트개발 등으로 농촌지역의 관광자원·관광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어리즘이다. 농촌교육형은 도시의 학생을 중심으로 자연체험·자연교육을 주목적으로 한 투어리즘이다. 농촌휴가형은 농촌관광형과 같이 시장논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농촌교육형과 같이 도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지역의 농가에서 반복형, 가족중심형의 수요에 대응한 투어리즘이다.

73) 지역마케팅은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needs and wants)를 확인한 다음, 이에 근거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개발, 구성하고,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충청도내에도 각 시군별로 다양한 형태의 농가민박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민박은 프로그램개발, 홍보, 농산물판매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연대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는 농가민박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여행사·관광단체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농가민박간 네트워크는 단체방문객들을 분산하여 수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농장운영, 공동농작업체험 등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며,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그린투어리즘이 갖는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농가민박과 여행사·관광단체간 네트워크는 방문객들에게 농가민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민 유치 및 농산물 직거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는 새로운 그린투어리즘 유형의 개발 및 적용, 관광상품의 개발, 농가경영기법의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

세계 최대의 민박네트워크 “지트 드 프랑스”는 이미 50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는 조직으로 TER(프랑스 농촌관광협회)가 있고 여기서는 EU전체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우선 농가민박을 함께 하는 농가들과 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그룹들과의 종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1.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현황

2000년 현재 충청남도 농어촌민박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수 363개, 종사자수 695명, 연간소득 6,058백만원, 평균조업월수 5.5개월, 사업체당 평균 소득 16,688천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업은 첫째,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태안군·보령시 등 해안에 접한 시·군에 전체의 86.1%가 분포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은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농어촌민박업은 1~2인의 소규모 가족노동력이나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평균조업월수가 5.5월에 불과하며, 이는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의 경우가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사업체당 평균소득 규모가 영세하다. 농어촌민박업의 연평균소득은 16,688천원에 불과하여 관광숙박시설(호텔, 여관, 휴양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14.6%에 불과하다.

2.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현황 및 문제점

1) 그린투어리즘 현황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린투어리즘관련 시범마을로 선정된 충청남도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리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기존농가에 부속한 농가민박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음식물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방문객이 원할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편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도시민들을 위한 농작업체험이 가능했으며 고추따기, 벼수확, 인삼파종

및 캐기, 배수확 등이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밤줍기, 메뚜기 잡기, 고기잡기, 고사리채취, 버섯채취 등 마을특성을 고려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마을지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린투어리즘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회 구성은 미흡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넷째, 대부분의 마을들은 외부에 자랑할만한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직접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축임산물 생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대도시 백화점등과 농산물을 계약재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마을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내 개별농장단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또한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 및 도로안내판이 미흡하고,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 팸플렛 등도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여섯째, 모든 마을은 군청·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과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마을과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는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일곱째, 대부분은 마을은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한편,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민박도입은 도시민들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이 계기가 되었으며, 창업시 법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민박내 음식물 제공 등의 경우 마을내 음식점과 갈등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창업시의 재원은 자체충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가부업형태로 창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름철에 한정되는 계절적인 특수성과 농산물 판매와 연계가 어려웠으며, 단독농가단위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농가민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한 도시

민들에 대한 환대 등을 통해 재방문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가민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경영교육은 선진지 현장체험을 통한 인식전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강의, 농가민박에 참여하는 농가주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결성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가민박 홍보를 위해서는 농가 및 회원농가 단위 홈페이지, 농협, 행정기관, 방문자들에 대한 홍보 등의 수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농가민박을 이용하는 외부방문객들에게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농가민박에 대한 실천경험의 교환을 위해 농가민박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주들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모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지원의 경우 우선,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은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는 농가민박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 등이었다.

2) 그린투어리즘 문제점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을지도자들의 경우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그린투어리즘은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농촌활성화 운동으로 아직까지 농가민박의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그린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현재의 작목반과 유사한 형태로 농가민박을 실시하는 농가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체계적

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일부 농가에서는 환경농특산물, 지역농특산물, 농특산물 가공품 등을 인터넷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직거래하고 있으나, 일부 선도농가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홍보책자, 마을안내판 등의 홍보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덟째, 그린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들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아홉째, 농가민박경영자들은 여름철에 한정적 한계로 인해 시설투자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째, 농촌주변의 환경정비가 불량하여 도시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3.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1) 도시와 농촌의 연계

① 농가민박

농가가 기존주택을 이용하여 부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민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시설이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가민박 경영주의 환대에 기초하여 다양한 농작업 및 농촌전통체험활동, 농특산물의 직접판매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독세대, 노령부부세대 등의 거주하지 않는 빈방을 이용하거나, 시·군마다 산재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하여 농가민박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되 숙박기능만 제공하고 음식은 공동으로 제공하거나, 방문객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농가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2003~2005년)로 농가민박실태 및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민박수용능력을 조사하고, 민박의 공급량을 판단한 다음, 민박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민박 및

지원조직을 결성하고, 민박경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방법, 체험프로그램 및 향토요리 등을 개발하며, 실시간으로 홍보·예약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2단계(2005년 이후)는 유럽과 같이 민박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충청남도 농가민박연맹(가칭)'의 가입기준과 등급결정기준 설정 및 엄격한 적용을 통해 민박서비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박단체에 의한 교육훈련 및 지원단체에 의한 자문·연수교육 등 민박경영자 육성, 민박정보 및 예약서비스확대 등 민박네트워크 확대, 자금지원 및 세제상 우대조치 등 민박경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농촌음식의 개발 및 제공

농가민박에서 일정인원의 범위 내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하고, 만약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법제화하여 농가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지를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유형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민박이라면 유럽에서처럼 민박소개책자나, 안내판 등에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표식을 하는 것도 도시민들을 위한 배려하고 판단된다.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향토음식이 분포하고 있어 농가민박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중심으로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농가고유의 음식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모든 가구가 음식물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숙박을 여러 곳에서 하되, 음식물은 한곳의 농가민박에서 제공하는 형태(예, 홍도마을)도 고려해볼 만하다.

③ 농가생산 농작물 생산 및 판매

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농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재방문률은 높일 수 있다. 또한, 농가민박경영주는

농산물을 방문객 및 인터넷판매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농업과 관광의 연계

① 외부방문객의 농림업 체험

마을 내에 공동농장을 마련하여 도시민들을 위해 분양하는 주말농장형, 또는 그린투어리즘 농가에서 도시민들이 농작업을 체험하는 농장체험형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농작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농장형의 경우는 도시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 농가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농장체험형은 한 두 번 만의 방문을 통해서도 부담 없이 농작업을 체험할 있다는 점과 농촌에 체재하면서 농촌 및 농작업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도시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방안이다. 이러한 농작업체험이 환경농업과 결부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농촌환경 및 경관정비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농업경관은 매우 중요한 상품가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그린투어리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경관 그리고 복원 및 창조해야 할 경관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형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환경 및 경관은 마을공동의 자산으로서 개별농가가 제공할 수 없는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가꾸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을 둔 마을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③ 이벤트 개최

그린투어리즘에서의 이벤트란, 농촌과 관련되어야 하며 농촌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을내에 이벤트를 개

최할 만한 특별한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여부를 떠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주민들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훌륭한 이벤트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중인 마을의 경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 개발에 노력하되, 특별한 특성이 없는 마을의 경우 그린투어 농가들의 학습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통한 이벤트 개발노력도 필요하다.

3) 사람과 사람의 연계

①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결성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은 반드시 군·면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일 필요는 없으며, 마을단위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 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그린투어를 추진하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를 중심으로 기존작목반을 활용하거나 학습회나 연구모임 형태로 구성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조직은 공식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마을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직이나 마을내 자치조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농가민박의 경우는 주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마을내 부녀회 조직을 활용하되, 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조직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린투어리즘 교육기회 확충

농가민박 등 경영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농가비즈니스적인 사고나 마케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에는 그린투어리즘의 편익,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린투어리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편익을 얻는 방법,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환경질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책자(문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활용)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개최하는 방법, 그린투어리즘과 마을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농가민박 등의 경영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경영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사항과 고객확보 등의 마케팅, 접객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및 세금 등을 교육하거나 그린투어리즘의 실천경험을 상호교환하는 것이다.

4.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추진과제

1)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농가민박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농가민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박업 대상자에 대한 규칙 제정시 현재 1년 이상 거주농민에 한정된 것을 현지 거주농민 외에도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전문적으로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박업 연합체 등이 고품격 농가민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등급지정 및 서비스수준 등 심사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규정하여, 민박농가의 발전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농가민박뿐 아니라 농촌환경 및 농촌경관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규에는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 공원, 녹지 및 녹지대, 주차장의 설치, 방범등의 설치, 소방용 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급수시설, 지하수의 채취, 도로, 우수 및 생활하수, 오수처리시설,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재 보전, 일조의 확보, 공해방지, 건축물의 기준, 옥외광고물의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법규를 제정할 의사가 없다면, 지방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자치단체 차원에서 “충청남도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나 “○○시·군그린투어리즘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회구성, 농촌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농가(민박농가)나 마을에 대한 재정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결성, 빈집의 활용, 농가민박이나 레스토랑의 등급구분 및 품질인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기법 개발

농가부업정도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영하는 농가민박에서 벗어나, 농업과 관광을 어떻게 결합하고, 숙박시설이나 농가음식점업운영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자리매김이 가능한지를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마을을 단위로 하여 지역전체에서의 연계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전체를 판매할 수 있는 소위 지역마케팅기법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축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는 농가민박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여행사·관광단체간 네트워크, 농가민박과 생산자 단체·농업기술센터·농협·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등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우선 농가민박을 함께 하는 농가들과 횡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그룹과의 종횡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정책제언

충청남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도 및 시·군 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 방안 모색,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및 농가민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린투어리즘 관련 조례제정, 그린투어리즘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의 지원,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① 그린투어리즘 창업지원단(창업컨설팅그룹)의 구성

도와 시·군 관련부서, 농협,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창업형태, 창업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투어리즘 창업지원단을 도와 시·군에 설치한다.

② 충청남도 및 시·군 농가민박연맹 창립지원

민박운영자들의 자율적인 민박관리를 위해 도 차원의 “충남농가민박연맹”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시·군과 읍·면·동에도 하부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농가민박인증제 및 등급제도 도입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농가민박에 대해서 인증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박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공무원, 민박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박등급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개발하여 등급별로 요금을 차등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그린투어리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나 시·군에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의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농촌자원의 보존에 대한 지원, 그린투어리즘 추진농가나 마을에 대한 재정지원, 그린투어리즘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결성, 빈집의 활용방안, 농가민박이나 음식점업의 등급구분 및 품질인증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⑤ 도 및 시·군 차원의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린투어리즘 관련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지정효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나 시·군별 객관적인 조사를 토대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그린투어리즘 우수마을에 대한 표창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개별농가에 대해 매년 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마을 및 개별농가를 표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⑦ 그린투어리즘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운영

그린투어리즘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린투어리즘 안내자, 체험학습 안내자, 그린투어리즘 기획자, 농가민박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을 육성 및 등록하고,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⑧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개발 경진대회 개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과 개별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발전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모범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마을별, 농가단위별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를 지원한다.

⑨ 그린투어리즘 추진센터 설립

그린투어리즘은 현재 공공부분의 주도 하에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지역활성화 센터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는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출연하여 설립토록 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도출,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린투어리즘 홍보를 위한 마을홈페이지 구축, 특색 있는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그룹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그린투어리즘 실시마을과의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① 그린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주민간 합의 도출

마을공동체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의 확보가 필요하며, 마을주민들도 그린투어리즘이 농촌활성화를 위한 대안임을 인정하는 등 주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②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그린투어리즘은 마을공동체와 개별농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는 경관조성, 도로, 상하수도, 공동모임터, 판매시설, 주차장 등 그린투어리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별농가는 농가민박, 체험농장, 농가음식점, 농특산물 생산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청사진인 중장기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계획수립시 행정기관이나 외부전문가그룹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③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린투어리즘을 위해서는 농가민박 및 음식점의 창업, 농작업체험장 확보 등과 같은 개별농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 보존,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등산로 및 화단조성, 상하수도, 공동모임터 등 마을특성을 살린 공동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마을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 홍보수단 개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단위의 홈페이지나, 일부마을을 중심으로 팜스테이를 소개하는 안내판 등도 필요하지만, 마을공동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마을안내 등의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구성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추진조직 개별농가 연합체나 농가민박을 추진하는 개별농가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고, 외부전문가나 관련공무원(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등)이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그린투어리즘 추진마을과 교류협력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마을간 농가민박, 농작업 체험, 농가음식, 농산물직판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농가에서는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민박시설 확충,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농가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현장 확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 정보교류, 그린투어리즘 관련 연구회 등에 가입, 그린투어리즘 관련 세미나·학습회 등에 참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① 농가비즈니스 및 마케팅능력 확보

그린투어리즘은 농가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경영자의 비즈니스정신과 마케팅능력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② 농가민박시설의 정비 및 확충

농가민박시설은 방문객들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인심과 농촌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하고 확충하되, 빈방을 이용하거나 빈집을 수리하여 농가민박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③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농작업 체험농장 확보

방문객들이 농작업 체험을 통해 도시민에 경험하지 못한 농촌성을 느낄 수 있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및 농작물의 생육·생산 등에 대한 학습을 위해 다양한 체험농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외의 정보교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농가와외의 교류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그린투어리즘이 갖는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⑤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및 학습회 등에 참가

그린투어리즘은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별농가경영자는 그린투어리즘 관련 연구회에 가입하거나 학습회 등에 참가하여 농가경영 및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⑥ 개별농가 고유의 음식개발 및 제공

마을이나 개별농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농가고유의 음식을 발하여 제공하며, 민박소개책자나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표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⑦ 환경농법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판매

그린투어리즘은 개별농가의 농가소득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농법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와 시·군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을 위해서는 3자간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즉, 도와 시·군자치단체-마을공동체-개별농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린투어리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3자간의 연대는 처음에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차 마을공동체나 개별농가가 연계·협력하여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하·조순재, 농촌어메니티자원 현황과 활용, 농촌어메니티보전 및 관광자원
화 방안 심포지엄,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한국농촌계획학회,
2002.
- 강미희,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 척도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강신겸,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강신겸·김정연 (역), 「녹색관광」, 일신사, 1997.
- 강신겸·박용규, 「IMF시대 저비용 여가시설의 개발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 경성전문대학 관광농업연구소, 「관광농촌마을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부,
1995.
-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17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 김범수·이주희, “농산촌에 있어서 Green Tourism의 전개를 위한 농촌지역 주
민과 도시민의 의식조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지역
개발학회, 1997.
- 김재민, “어촌·어항의 관광상품화 방안”, 어촌·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 해
양수산부, 2000,
- 김정연, “어촌 관광개발의 과제와 전략,” 「열린충남」, 제3권 제2호, 충남발전연
구원, 1997.
- 김행기, “신비의 건강마을, 금산군 민박여행”,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한
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농림부, 2002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2.
- 농림부, 「그린투어리즘을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보도자료, 2001. 6. 14.
- 민상기·김정연,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민중서림, 엡센스 국어사전, 제4판, 민중서림, 1997.

박광순 외, 일본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경인문화사, 2001.

박광순, “일본의 중산간지역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九州北部地域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1호,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1998.

박시현 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박시현·송미령, “농어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KREI·농특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산림청, 녹색관광과 산촌활성화, 1999.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7. 5.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순창군,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기본구상, 1999.

유승우 외,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원의 연계개발 방안”, 정책연구보고 P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유승우·민상기,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R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유승우·최동주,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2001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윤대순, “외래관광자를 위한 민박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7호, 한국관광경영학회, 2000.

윤진옥 외, 도시 및 농촌거주자의 농촌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1995.

이경모, 이벤트학의 개념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0집.

이동기,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개발방안 : 대구시의 약초 시민농원 개

- 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 임득춘,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아름다운 지역매력 부각,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0.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2제2호(2001 여름), 2001.
-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 전북 무조, 진안,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 정의국, “소비자가 찾아오는 농장, 아리랜드”,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전국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 조계현 외 공역, 녹색관광, 누리예, 2000.
- 조영숙, “농촌·농업관광사업 운영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제21권 제12호, 농촌생활연구소, 2000.
- 최영국,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연구원, 「국토」, 2000. 5.
- 최희갑, “2002년 TREND 10 (국내편)”, CEO Information, 제329호, 2002. 1.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6.
- 행정자치부, 「21세기 새로운 농촌 만들기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1.
- 홍성권·김성일,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Vol.30, No.1, 한국조경학회, 2002.
- 환경부, 자원유형별 생태관광 추진전략 수립 연구, 2000.
- Dernoi, L. A., Prospects of Rural Tourism; Needs & Opportuni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0), 1991.
- Gunn, Clare A., *Tourism Planning*, New York : Taylor & Francis, 1988.
- Hill, Brian J.,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 1993.
-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9_1.htm
- <http://www.milenium.pe.kr/ustour.htm>
- 山崎光博・中村攻・井上和衛,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1996.

[부 록]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00.11.11 순창군조례제1596호

개정 2001. 6.15 순창군조례제16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그린투어리즘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정비하여 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특색있는 향토문화, 풍부한 특산물, 정감있는 생활등 유·무형의 자원을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시켜 도시주민의 농산촌체재형여가활동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는 물론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증진으로 인적·물적·정보교류를 통해 그린투어리즘사업의 발전과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산촌 주민들의 주도로 농산촌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진흥 전략을 말한다.
2. “농산촌체재형여가활동”이란 주로 도시주민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농산촌에 체재하면서 각종 체험과 그밖에 농산촌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그린투어리즘사업”이란 농산촌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고 선용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자원”이란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바탕이 되는 농산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아름다운마을”이란 전통문화와 순박한 인심, 깨끗한 환경과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여건이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그린투어리즘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④위원은 군소속 관련 실·과·소·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위원의 경우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그린투어리즘사업 총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 및 지원대상·범위의 심의
3.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
4. 보전 대상사업 심의
5. 기타 군수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 장소 · 출석위원 성명 · 회의안건과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운영에 소극적일 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강사의 운용) 그린투어리즘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및 교

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의 보전) 군수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이나 지역은 그 원형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역사적 또는 향토적인 가치가 있어 그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
2.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환경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지역
3. 기타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원이나 지역등

제12조(자원보전에 따른 지원)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원의 보전으로 인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의무) ①군수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 계획수립, 육성과제 발굴, 보전자원의 조사, 주민교육과 인재양성,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실천자 및 실천단체는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질적 향상과 군민참여를 위하여 솔선하여야 한다.

제14조(육성과제) 군수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한다.

1. 그린투어리즘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
2. 그린투어리즘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3. 그린투어리즘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4. 그린투어리즘의 자원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무형 문화·예술분야
5. 기타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제15조(사업추진 등) ①제14조 각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 각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군수는 그린투어리즘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별법과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정된 육성분야 사업중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7조(사업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될 때

제18조(사업비 확보) 군수는 제14조 각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년 그린투어추진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그린투어리즘 연구실 설치) ①그린투어리즘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 그린투어리즘연구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단, 그린투어리즘 연구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순창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그린투어리즘 연구실은 그린투어리즘사업의 개발과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그린투어리즘사업의 발전과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선정등) ①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경관, 특색있는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대상마을로 선정 추진할 수 있다.

②대상마을은 거주 주민의 3분의 2이상 참여하고 전원관광농촌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아름다운마을 만들기에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아름다운 마을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연구회 운영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회는 순창군 그린투어리즘연구회(이하 “이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순창군에서 도시와 농촌의 생산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연구 및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회의 사무소는 순창군에 둔다.

제2장(사업)

제4조(사업)이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그린투어리즘 사례연구
- ②그린투어리즘 현장 비교견학
- ③그린투어리즘 각종세미나, 학회 참석
- ④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 ⑤그린투어리즘 사업실천
- ⑥그린투어리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⑦기타 이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이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자격 및 입회절차) ①정회원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회의 취지에 찬동하는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순창군그린투어리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2. 현재 관광농원이나 농장, 분재원, 유기농업 등 도시민과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자
 3. 개인 또는 마을에 그린투어리즘사업을 도입코자하는 자
- ②준회원은 군청등 그린투어리즘 관련 기관, 단체, 공무원과 직원으로써 이회 취지에 찬동하는자로 한다.

③입회는 정회원의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입회여부를 결정하고 준회원은 본인 또는 이회에서 필요시 동의를 얻어 입회시킨다.

제7조(회원탈회 및 제명) ①이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의무불이행, 자진탈회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한다.

②제명된 회원은 제명된때부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명대상자에게는 2주전 소명의 기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이회가 정한 제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규약과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조직)

제10조(임원) 이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고문 : 약간명

②자문위원 : 약간명

③회장 1인

④부회장 2인

⑤감사 1인

⑥사무국장 1인

⑦부장

제11조(선임) ①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원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직무) ①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그린투어리즘사업 총괄담당 주사가 된다.

⑤사무국장은 이회의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운영한다.

⑥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당해 분야 사무를 추진한다.

제14조(총회) ①정기총회는 년2회(상·하반기)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교구가 있을 때

③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15일 이상 지체할때는 재적과반수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용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의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성원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재적과반수 미달로 유회(流會)되어 동일안건으로 재소집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과 관계없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가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장(재정)

제18조(수입) 이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찬조금, 수익사업금 등으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이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로 연1회 실시하여 총회시 감사 보고를 한다.

부칙

제1조(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린투어리즘 체크리스트

() 마을

구 분	내 용	예	아니오
체재시설	방문객이 숙박할 농가민박이 있다.		
	방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빈집을 이용하여 농가민박을 하고 있다.		
체 험	방문객들이 농작업(모심기·벼베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밤줍기·메뚜기잡기 등)를 개최하고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안내자가 있다.		
교 육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마을연구회 등이 있다.		
생산·판매	친환경 농축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도시백화점 등과 농산물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외부에 자랑할만한 농특산물이 있다.		
	농특산물판매시설이 있거나 판매하고 있다.		
	마을에 음식점이나 농가레스토랑이 있다.		
홍 보	마을·특산물 소개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가 있다.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안내책자나 팸플렛이 있다.		
	마을을 소개하는 입간판이나 도로안내판이 있다.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도시의 아파트단지·단체 등과 직거래 및 도농교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다른 마을과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부지원	그린투어리즘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가민박 등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린투어리즘 농가인터뷰

() 농가

구 분	내 용
도 입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그린투어리즘농가로 창업하는데 있어서의 관련제도 및 법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지식은 어떻게 습득했는가?
	그린투어리즘은 부업(농외소득)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가주의 생각은?
	그린투어리즘은 단독농가 또는 집단농가중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운 영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인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농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을의 농작업체험프로그램에 농가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가경영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는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외부방문객의 유치 및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농가단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실천경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교환하고 있는가?
외부지원	그린투어리즘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농가단위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그린투어리즘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농가단위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 집 필 자 ■

송 두 범(宋斗範)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장
-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 전공)
- songdb@hanmail.net

기본연구과제 2002-0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무대리)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501 팩스 : (042)841-9452

인 쇄 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15-X 03910

<비 매 품>